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이	학번	2022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Balnga City
파견대학	BPSU(BGC)	기간	1/28~2/17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바탄반도 주립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어학원인 BGC에서 생활했습니다. La Vista라는 리조트 안에 있는 어학원이며, 선생님들이 전문적이시고 열정이 있으셔서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p>
수업	<p>수업시간은 그룹 4시간, 1대1 수업 3시간으로 동일하나, 시간표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p> <p>9:00 - 9:50 : let's talk (그룹 수업) 게임을 통해 가벼운 대화.</p> <p>10:00 - 10:50 : 토익 스피킹.</p> <p>유형별 설명을 해주시고, 팁과 모범 답변을 알려주신다. 돌아가면서 연습을 시키신다. 마지막 수업 시간에 토익 스피킹 테스트를 본다.</p> <p>11:00 - 11:50 : Interchange (1대1)</p> <p>speaking 교재인데, 레벨테스트를 잘 못봐서 난이도가 매우 쉽게 느껴졌다. 선생님들마다 수업 방식이 다르다. 교재 위주로 나가거나, 대화 수업을 한다. 초반에는 교재 위주로 나가다보니 지루하고하고 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그 이후로 피드백을 반영해주셨다. 수업 전 다양한 활동을 준비해주셨다. 미래의 나에게 편지쓰기, 나의 꿈을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p> <p>13:00 - 13:50 : 토익 스피킹</p> <p>14:00 - 14:50 : MMC (멀티 미디어 클래스)</p> <p>각본, 연출, 촬영, 편집을 다 맡아서 해야해서 막막했다. 하다보니, 흥미를 느꼈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 같아 뿌듯하다.</p> <p>15:00 - 15:50 : reading (1대1)</p> <p>주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와 문제들이 있었다. 영어 단어장에는 없는 생소한 단어를 배울 수 있었다. 책에 있는 주제와 관련된 의견나누기, 비교해보기를 통해 새로운 단어와 설명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질문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저것 궁금한 게 있을 때 바로바로 질문했다.</p>

	<p>질문했을 때, 반응을 잘 해주셔서 편하게 질문할 수 있었다.</p> <p>16:00 - 16:50</p> <p>Interchange (1대1)</p> <p>책에 있는 주제로 자유롭게 얘기했다.</p>
Activity	<p>토요일에는 수업 없이, 단체로 버스를 타고 소풍을 간다.</p> <p>1. Singnatala</p> <p>2. Subic Bay 요트투어, 자유여행</p> <p>찾아보면 사라피도 있고, 맛집도 많다. 계획을 잘 세워서 가는 게 좋다.</p> <p>나는 걸어서 근처 해변가를 가서 놀았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필리핀 겨울 날씨는 최고 30도 최저 22도 정도이다. 일교차가 생각보다 있어서 긴팔, 긴바지 가디건은 필수이다.
안전	길 건널 때, 조심해야 한다. 어학원 근처에 Vista라는 물이 있는데, 고속도로라서 큰 화물차도 다니기 때문에 조심해야한다. City 경찰분이 같이 건너주셔서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
숙소	빙 인에 침대 3개와 미니 화장대, 옷장이 있다. 옷장 공간이 넉넉하지는 않아서 주로 캐리어를 열어두고 생활했다. 처음에 화장실이 좁다고 느껴졌는데, 적응이 되니 괜찮았다. 베개, 이불, 빨래 분실 등 불편사항이 생기면 점호 때 buddy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식사	매일 3끼가 제공된다. 필리핀 이모님께서 해주시는데 주로 한식이 나왔다. 맛이 한국에서 먹는 것과 좀 달라서 어색했는데, 적응되니 집밥처럼 맛있게 먹었다. 저녁은 투표를 해야 먹을 수 있다. 대부분 밥이 맛있어서 먹고 나갔다. 외부 식당들은 양이 적다고 느껴졌다. 가격이 싸고 맛있어서 여러개를 시켜 다양하게 먹을 수 있다. 보통 200~400페소 정도에 사 먹을 수 있다.
교통	<p>1. 트라이시클</p> <p>거리에 따라 비용이 다르다. 타기 전 흥정이 필요하며, 오티 때 적당한 가격을 알려주신다.</p> <p>2. 버스</p> <p>같이 가는 인원이 많을 때 추천한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636,8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SSP(학생연수허가서)	150,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여행자보험	37,950	출국 전 사전 납부
개인 생활비	401,099	300달러 환전
//	23,780	1000페소 환전
합계	1,249,629	

5. 출국 전 준비사항

-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1. 비타민c, 유산균 챙겨가기!! 물갈이로 아프고 나서, 현지에서 구매했는데 한국에서 챙겨가면 돈이 절약된다. 아플 때 빠른 회복을 돕는다.
 2. 돈을 넉넉히 챙겨가는 것이 좋다. 300이면 충분하지만, 병원에 다녀와서 부족하게 느껴졌다. 100달러를 여분으로 챙겨갔었는데, 다 못쓰고 돌아올 것 같아 환전을 못했다. 50달러짜리 지폐로도 가져가는 것을 추천한다. 100달러짜리 지폐를 우대하니 나머지는 100달러짜리 지폐로 챙겨갈 것.
 3. 수영복과 비치타월을 챙기기! 현지에서 300페소주고 비치타월을 구매했는데, 아까웠다.
 4. 어학원에서 사전에 알려주는 준비물이 대부분 필요했다. 꼼꼼히 확인해서 챙기기
 5. 물갈이>>설사,장염(세균 감염으로 인한)을 대비한 약 처방받아 가기. 위장약(제산제, 소화제)만 챙겨갔는데, 큰 도움을 못 받아서 후회했다.
 6. 동전 지갑 꼭 챙겨가기!! 현금으로 결제하다보니 동전이 많이 생긴다. 마지막 주는 돈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동전이라고 해서 아무대나 두지 않기!! 5페소 10페소 20페소 동전을 주로 많이 주는 데, 한두개씩 모으다보면 금액이 커진다.
 7. 멀티탭, 훈증 모기향(홈매트 등) 챙겨가기.
 8. 손소독제, 소독티슈 챙기기 : 한 번 아프고 나니, 꼭!! 필요한 물품이 되었다. 한국에서 더 싸고 좋은 것을 살 수 있으니 챙겨가기.
 9. 물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병에 담겨있지 않은 음료수 또한 조심해야한다! 특히 생과일주스를 조심해서 사먹기. 물 안에서 판다고 해서 방심x. 바로 손질해서 주는 신선한 주스만 사 먹을 것. 얼음 조심!!!! 같은 물을 얼려 만든 거다. 미지근하게 먹더라도 얼음을 빼고 주문해라.

10. 영어로만 생활해야 하므로, 기초 회화는 공부하고 오는 것을 추천한다.

11. 어학원에서 현지 유심을 주신다.

데이터, 통화 등은 글로브 원 이라는 앱에서 구매할 수 있고, 트래블 월렛이 없다면 vista 물, 세븐일레븐 등에서 충전해서 구매할 수 있다. 한 주에 99페소짜리면 충분했고, 약 2400원이므로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다.

12. 시티 투어 때, public 마켓을 들르는 데, 이 이후에 환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100페소짜리로 5장정도 여분으로 한국에서 환전해 가는 것 추천.

6. 본인 소감 및 평가

3주가 정말 짧게 느껴졌지만,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고 왔습니다.

단순히 어학 공부를 목적으로 필리핀을 선택했는데, 좋은 자연환경과 문화를 체험하며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생활하며, 필리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고 관심이 없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서도 기본적인 전통 음식, 역사에 대해 알아보지 않았던 제가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필리핀을 알아가고 좋아하게 되는 데에는 좋은 만남이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3시간 정도로 BPSU 학생들과 만났던 시간은 짧았지만,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짝을 지어서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설명을 해주는 시간을 가졌는데, 친구가 되니 자연스럽게 그 문화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저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업에서만 여섯 분의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첫 수업 1시간 동안 자기소개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름과 전공 외에 어떤 것을 말해야 할지 어색했습니다.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새로운 것을 배우길 좋아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에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니, 감사한 일도 참 많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고 배워 가다 보니, 감추고 있었던 저의 새로운 모습들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숙소 앞에 있는 Mall



저녁에 Subic Bay에서 찍은 해변 주변.



Singnatala: 수영장이 있고 집라인을 탈 수 있는 휴양림.



첫 날 일어나서 문을 열자마자 찍은 풍경



baked chicken과 샐러드 추가를 추천. SM 몰 안에 있다. 소스가 맛있었다.



다른 학교와 함께한 야외 활동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신 x x	학번	2020 x x x x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Balanga, Bataan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24.01.28.~02.17.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La Vista라는 리조트에서 지내게 되며 수업은 리조트 내 Cafeteria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리조트는 Clark 공항에서 차량으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도로 하나만 건너면 Vista Mall이 있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용이합니다. 도보로 조금 걸어가면 맥도날드가 위치해 있습니다. 리조트에 야외 수영장이 있어 방과 후에 즐길 수 있습니다.
수업	<p>레벨 테스트 성적을 바탕으로 교재와 수업이 편성됩니다. 수업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진행이 되며 1교시당 50분 수업, 10분 휴식시간이 주어지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진행됩니다.</p> <p>문법, TOEIC SPEAKING, LET'S TALK, MULTIMEDIA CLASS, READING 수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문법 수업과 READING 수업을 제외한 모든 수업은 그룹 수업입니다.</p> <p>문법 수업은 하루에 2시간 진행되며 총 두 분의 선생님이 1시간씩 1대1로 수업하십니다. 문법 난이도는 높지 않아 본인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p> <p>TOEIC SPEAKING 수업은 하루에 2시간씩 한 분의 선생님과 그룹원들과 함께 진행됩니다. TOEIC SPEAKING 테스트 고득점을 위한 스킬을 습득할 수 있으며 모의문제를 조원들과 본인이 응답하고 선생님께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도움이 된 수업이었습니다.</p> <p>LET'S TALK 수업은 하루에 1시간 한 분의 선생님과 그룹원들과 함께 진행됩니다. 각 주제에 따른 선생님과 조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토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영어 말하기에 자신감이 붙게 되는 수업이었습니다.</p>

	<p>MULTIMEDIA CLASS 수업은 하루에 1시간 한 분의 선생님과 그룹원들과 함께 진행됩니다. 각 그룹별로 같은 아티스트의 다른 곡을 뮤직비디오 촬영하게 됩니다. 그룹원들간의 호흡과 단합이 필요로 하다고 느낀 수업이었습니다. 수업시간에는 리조트 내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 및 제작합니다.</p> <p>READING 수업은 하루에 1시간 1대1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수업이 주된 내용이며, 문장 독해력을 필요로 합니다. 지문에 처음보는 숙어들이 있어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문해력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수업이었습니다.</p>
Activity	<p>Activity 활동을 통해 선생님과 학생들 소개하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팀별 게임을 통해 팀원과의 협동과 단합을 추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p> <p>BPSU 현지 학생들과 필리핀-한국 문화를 소개하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필리핀의 전통 무용, 장소, 스포츠 등을 접하며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p> <p>Sinagtala에 방문하여 줌라인, 스카이워크 등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었고, 수영장 또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장소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 액티비티를 충분히 즐기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p> <p>요트투어를 진행하며 본인이 원한다면 바다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요트투어를 마친 뒤 각자 자유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이 때 쇼핑몰에서 기념품을 구매하거나 바다구경을 하거나 수상스키를 즐길 수 있습니다.</p> <p>다른 학교와 함께 연합하여 체육대회를 진행했었습니다. 학교대항전이 아닌 파견 온 모든 학교 학생들과 팀을 섞어 진행되었기에 아쉬운 점도 있었으나 여러 종목을 진행하며 다른 학교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된 활동이었습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고온 다습합니다. 한국보다 햇볕이 강해 밖에 나가게 된다면 선크림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p>

안전	필리핀은 치안이 안좋다는 인식이 있으나 대형건물에 들어가면 입구에 보안관분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치안이 안좋다고 느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에는 도로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어 눈치껏 건너야 하나 보안관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함께 도로 횡단하며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숙소	월, 화, 수마다 빨래를 진행하게 되고 방 청소도 해줍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불이 너무 얇습니다. 본인이 추위를 잘 탄다면 개인담요를 가져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옷장에 따로 제공되는 옷걸이가 없으며, 세면대에 개미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또한 화장실이 비좁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식사	한국에서보다 한식을 더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필리핀 음식이 많이 나오지 않아 아쉬웠지만 전반적으로 맛 좋은 편입니다.
교통	트라이시클이라는 교통수단을 주로 이용하게 되며 이동거리 및 기사님에 따라 가격이 상이합니다. 주로 50~80페소정도 지불하게 됩니다. 버스의 경우 더 저렴하지만 배차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636,800 원	출국 전 사전 납부
SSP(학생연수허가서)	150,000 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여행자보험	37,950 원	출국 전 사전 납부
달러 환전	400 달러	출국 전 환전
페소 환전	약 50000 원	출국 전 환전(한화 약 5만원어치 페소)
식비	약 6000 페소	커피, 바베큐파티, 술자리 포함
Sinagtala Activity	900 페소	짚라인 2회
마사지	500 페소	콤비네이션 1시간
기념품 구매	약 2500 페소	
교통비	약 500 페소	
유심 구매	약 250 페소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필리핀의 물은 석회질이 많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물에 적응하지 못해 몸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현지 약국은 약값이 비싸기에 소화제, 지사제 등 상비약을 넉넉히 들고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햇볕이 너무 강합니다. 선크림을 수시로 발라줘야 합니다. 환전소에 따라 구권 달리는 받지 않는 곳이 있고, 권종에 따라 환율을 다르게 쳐주는 곳도 있기에 국내에서 달러를 가져올 때 100달러 신권으로 가져오는 것이 환전에 유리합니다. 또한 환전소에 따라 원화-> 페소로 환전이 가능한 곳이 있으나 수수료가 매우 비싸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트라이시클 이용 시 기사님께 가격을 여쭙는것보단 먼저 50페소를 제시하고 흥정을 하면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후 10시가 넘어가면 트라이시클이 잘 잡히지 않고 기사님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예쁜 편지지 혹은 편지봉투를 사기가 어렵습니다. 편지로 선생님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한국에서 미리 용지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점호는 매일 자정에 진행됩니다. 토스뱅크같은 경우 사고 팔 때 환율이 같고 환율우대가 100%로 적용될뿐더러 해외결제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국제브랜드 결제가 가능한 카드 단말기가 있다면 사용 추천드립니다. Vista Mall보단 SM Mall이 쇼핑하기에 선택지가 더 많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3주라는 짧은 기간인 만큼 드라마틱한 영어실력 향상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수업 할때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 환경이 구성되어있기에 영어 말하기에 큰 자신감이 붙고 문장 구사하는 능력을 기르기엔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법이 미숙해도 영어 문장을 말하면 선생님들도 최대한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올바른 문법을 알려주십니다. 선생님들 또한 저희가 문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말씀해주시기 때문에 1대1 수업도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 3주라는 기간이 짧게 느껴졌고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첫 주 Activity</p>	<p>Sinagtala 입구</p>



Sinagtala



City hall



La Vista 내 수영장



요트투어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안 x x	학번	2021 x x x x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발랑가 (Balanga City)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BPSU)	기간	2024.1.28. ~ 2.17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발랑가 시티에 있는 바탄반도주립대학에 3주 동안 파견되었고, 학교 앞 기숙사에서 생활하였습니다. 학교 안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 있고, 수업이 끝난 후로는 자스민 홀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앞에 Vista Mall이라고 대형 쇼핑몰이 있어 웬만한 생필품은 그곳에서 다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가 위치한 곳이 변화가는 아니라 가고 싶은 곳이 있을 땐 트라이시클을 타고 10~15분 정도 나가야 했습니다.
수업	<p>필리핀에 도착하고 첫 날 레벨 테스트를 하는데, 레벨 테스트는 토익 스피킹 시험으로 보았습니다. 첫날 레벨 테스트 성적으로 레벨이 1과 2로 나뉘는데 같은 레벨인 사람 5명씩 그룹이 생성되고, 같은 그룹 사람들끼리는 3주 내내 그룹 수업을 함께 듣습니다.</p> <p>9:00 - 9:50am (1:1 class) - Interchange 2 → 1교시는 1:1 수업으로, Interchange 2라는 교재를 이용하여 각 챕터마다의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 수업에서는 기초 문법에 대해 주로 배웁니다. 1:1 수업인 만큼 제 생각에 대해 영어로 말하는 활동이 대부분입니다.</p> <p>10:00 - 10:50am (Group class) - TOEIC SPEAKING → 토익스피킹 각 파트별로 중요한 부분을 배우는데 그룹 수업이라 같은 그룹원 5명이 같이 수업을 듣습니다.</p> <p>11:00 - 11:50am (Group class) - Let's talk 2 → 이 수업도 마찬가지로 그룹수업이며 교재의 주제에 맞는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자유롭게 스피킹 하는 수업이었습니다.</p> <p>[12:00 - 12:50 (점심시간)]</p> <p>1:00 - 1:50 (1:1 class) - Interchange 2 2:00 - 2:50 (Group class) - TOEIC SPEAKING 3:00 - 3:50 (Group class) - Multimedia class → 멀티미디어 수업은 각 그룹마다 정해진 곡을 가지고 뮤직비디오 영상을 찍고 만들어야 하는 수업입니다. 수업시간에 영상을 찍을 시간을 주시</p>

	<p>지만 추가로 영상을 더 찍어야 할 때는 그룹사람들과 수업이 끝난 후 만나서 찍기도 했습니다.</p> <p>4:00 – 4:50 (1:1 class) - Reading</p> <p>→ 마지막 수업은 reading 수업인데 reading 교재로 수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1:1 수업이기 때문에 영어로 제 생각을 말해야 할 기회가 많습니다.</p>
Activity	<p><첫째 주></p> <p>1. City Tour</p> <p>첫째 날인 월요일에는 오전에 레벨 테스트를 끝내고 오후 3시부터 7시 30분까지 Balanga City를 투어 했습니다. 이 날 public market도 둘러보고 Balanga City의 시청도 구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SM Mall에 가서 자유롭게 보낼 시간을 주시는데, 이때 달리를 폐소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p> <p>2. Getting to know</p> <p>둘째 날인 화요일에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자스민 홀에서 Getting to know라는 활동을 했는데 같은 학교 사람들을 알아가고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며, 다른 선생님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p> <p>3. Sinagtala Adventure</p> <p>첫째 주 토요일에는 Sinagtala에 가서 줌라인을 타는 등의 액티비티를 했는데, 저는 아파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p> <p><둘째 주></p> <p>4. BPSU Intercultural Exchange</p> <p>둘째 주 화요일 오후에는 BPSU 본 캠퍼스로 가서 필리핀 학생들과 만나 그룹을 짜고 문화를 교류하는 활동을 하는데, 친해지기에는 활동 시간이 꽤 짧다고 느껴졌습니다. 필리핀 현지 친구들을 사귄 수 있는 공식적인 활동은 이 활동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p> <p>5. Yacht Tour</p> <p>둘째 주 토요일에는 수빅 베이에 가서 요트투어를 하였는데, 같은 학교 학생들끼리 한 요트에 같이 타 1시간~2시간 정도 요트 투어를 했습니다. 요트투어 하는 중간에 수영할 시간도 주십니다.</p> <p><셋째 주></p> <p>6. Grup Dynamic</p> <p>셋째 주 목요일 오전에는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섞인 팀이 형성되어 각 팀끼리 여러 활동을 하는 그룹 다이내믹 활동을 하였습니다. 오후에는 필리핀 문화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필리핀 고등학교 전통 댄스팀의 무대도 감상했습니다. 필리핀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직접 필리핀 전통 춤을 배워 추기도 하였습니다.</p>

	<p>7. Graduation + MMC Festival</p> <p>셋째 주 금요일 오전에는 졸업식을 했고, 졸업식 후에 저희 학교 각 그룹의 MMC 작품을 감상하며 MMC 시상식도 하였습니다. 졸업식과 MMC Festival이 끝난 후에는 공항으로 가기 전인 저녁 10시 이전까지 자유시간이었어서 각자 짐을 챙기거나 마지막으로 가고 싶었던 곳에 가는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p>
--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2월은 건기라서 필리핀에서 머무는 3주 내내 비가 온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낮에는 최고 30도 밤에는 23도 정도라 일교차가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보통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생활하였고, 실내에서는 에어컨 바람에 추울 때도 있어서 얇은 긴팔과 긴바지도 가끔 입었습니다. 습도가 높지 않은 편이라 활동하기 좋은 편이었습니다.
안전	제가 봤던 필리핀 현지인들은 대부분 저희 같은 외국인에게 호의적이었고, 식당이나 백화점, 카페 같은 곳마다 경찰분들이 입구에 서 계셔서 크게 위협적인 상황은 딱히 없었습니다. 기숙사 앞에는 큰 쇼핑몰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려면 큰 도로를 건너야 했고, 그 큰 도로에는 횡단보도와 신호등도 없어서 길 건너기가 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기숙사 입구 앞에 항상 security분이 계셔서 같이 길을 건너달라고 요청드리면 안전하게 같이 건너주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휴대폰이나 지갑 같은 귀중품이 도난당하는 일이 제 주변에서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항상 가방을 앞으로 매고 잘 챙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소	저희 숙소에서는 여자 3명이 룸메이트로 같은 방을 썼는데 만약 같이 숙소를 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출국 전에 버디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되어서 좋았습니다! 숙소에는 각자의 침대가 있고 옷장, 화장대가 하나씩 설치되어 있었으며 화장실은 좀 좁은 편이었습니다. 멀티탭은 1인당 하나씩 챙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마뱀이 정말 많았습니다.
식사	식사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총 세 번 제공되는데 메뉴는 거의 다 한식이었고 간도 정말 잘 맞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식사를 제공해 주셔서 주말에도 숙소에서 머무르고 싶은 사람은 기숙사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기숙사 주변에는 졸리비, 맥도날드 등 식사를 간단히 사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교통	최대 20분 거리까지는 트라이시클을 타고 다녔는데, 가끔은 버스도 탔었고 버스비는 15페소 정도였습니다. 트라이시클은 그랩이라는 앱을 통해 자동 카드 결제로 탈 수도 있고, 주변의 트라이시클을 잡아서도 탈 수 있었습니다. 트라이시클을 잡기 어려울 때는 기숙사 입구 앞에 계시는 security분께 잡아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636,8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SSP(학생연수허가서) 발급	150,000원	출국 전 본인이 직접 신청
여행자보험	37,95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생활비	3,012페소	비자카드 사용
생활비	11,500페소	현금사용
합계	1,170,716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보통 3주 동안 300~400불 정도 쓴다고 미리 알려주셨는데, 저는 필리핀 현지에서 바로 쓸 6000페소와 후에 필리핀에서 환전해서 쓸 300달러를 미리 환전하여 현금으로 챙겨갔습니다. 필리핀에서 페소를 쓰다가 모자라면 환전소에 가서 환전할 수 있기 때문에 출국 전에 페소를 미리 많이 환전해서 챙겨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비자 카드에 미리 페소를 충전하여 갔는데 대형 mall 안에 있는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대부분 카드 사용이 가능했지만, 시장이나 지역 식당 등에서는 카드 사용이 불가능하여 거의 현금을 사용했습니다. 밤에는 모기가 좀 많아서 밖에 나갈 때 뿌릴 모기 기피제 같은 것들을 챙기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밤에 잘 때 숙소에 모기 방향제를 켜두고 자면 모기에 물리지 않아 좋았습니다. 3주라는 시간이 그리 길진 않아서 필리핀에 머무는 동안 꼭 가보고 싶은 장소가 있다면 미리 찾아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BPSU 선생님들께 학교 주변 맛집이나 관광지 등을 추천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라이시클 이용료나 필리핀 현지 물가에 대해 잘 모른다면 버디 티쳐나 학교 선생님들께 미리 여쭙보아 적절한 가격을 파악하여 최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평소에 꼭 쓰던 물품이나 비상약 등은 출국 전 미리 챙겨가는 것이 좋지만, 작은 일상용품 정도는 기숙사 앞에 있는 Vista Mall에서 대부분 구매할 수 있는 편이었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필리핀에 도착한 후 3일 동안은 멀쩡했지만 4일차부터 물갈이를 시작해 일주일 넘게 몸살, 열병, 설사병 등으로 꽤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버디 티쳐께서 병원도 같이 가주시고 약도 잘 챙겨주시는 등 친절하게 케어해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영어를 잘 해야만 한다는 강박 때문에 영어로 스피킹 하는 것이 부담되고 어려웠지만, 필리핀에서는 수업을 하는 내내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선생님들께서 격려해 주셔서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필리핀에서 머무는 3주 동안 같은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사람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활동이 몇 번 있어서 사람을 사귀는 것이 어려운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저도 편하게 여러 사람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고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필리핀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나서

제가 얻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평소에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거나 영어 스피킹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분들께 이 프로그램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필리핀 어학연수는 저의 첫 해외 경험인데 3주 동안 정말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기숙사 앞 풍경</p>	<p>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p>
	



public market



트라이시클



Yacht Tour



Bataan Tourism Park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박 x x	학번	2023 x x x x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발랑가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24.01.28.(일)~2024.02.17.(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숙소와 수영장, 수업장소가 다 모여있는 La Vista라는 숙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클락 공항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으며 지역명은 발랑가 시티입니다. 기숙사와 수업 듣는 장소는 붙어 있고 수업은 식사를 하는 곳인 Cafeteria에서 진행됩니다.
수업	첫날 개인 레벨테스트를 응시하게 됩니다. 개인별로 토익 스피킹과 주어진 그림을 보면서 자유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테스트를 보면 그룹이 형성이 되는데 제 그룹은 5명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수업은 9시부터 시작하여 11:50분까지 오전수업을 하고 점심식사를 한 후 1시부터 4:50분까지 총 50분의 수업을 7번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중에서 4번의 그룹수업과 3번의 1대1 수업이 있습니다. 개인 1:1 수업은 Reading 1시간과 Interchange 2시간이 있고 그룹 수업은 토익스피킹 2시간, Let's talk(그룹 활동 수업) 1시간과 뮤직비디오 만드는 MMC 수업 1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수업은 대학에서 주는 책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패드를 사용해서 강의 자료를 다운 받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책 내용 뿐만 아니라 프리토킹을 통해서 언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열정이 넘치시고 즐리거나 지루할 때 쯤 재밌는 게임과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개인 1:1 수업때 선생님과 프리토킹을 하면서 주변 맛집도 알아보고 카페도 알아놓으면 개인자유시간에 가볼 수 있어서 좋으니 꼭 물어보세요. 과제는 MMC 과목만 있었습니다. 조 마다 노래가 주어져 그 노래의 가사와 분위기에 맞게 조원들과 함께 배우도 정하고 촬영, 기획, 편집까지 해서 제출해야하는 과제입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조원들과 다같이 재미있게 찍고 편집을 하다보니 더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Activity	.1주 1. city 투어(월): 첫 날 오후에 발랑가 시티 내에 뭐가 있는지 알려주는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시청 앞에서 사진도 찍고 SM쇼핑몰이라는 큰 쇼핑몰에 가서 환전도 하고 개인별 저녁 식사 및 쇼핑 자유시간이 주어집니다.

니다.

2. getting to know(화): 연수에 같이 온 같은학교 학생들과 게임을 친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돌아가면서 서로 얼굴 그려주기와 조별로 진행되는 학생과 선생님 이름 먼저 맞추기, 사진 속 동작 따라하기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같이 간 학생분들과 더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3. BPSU Intercultural activity(수): 아침 수업 대신 바탄반도주립대학에 실제로 가서 그 학교의 학생들과 문화 교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필리핀 학생은 한국 단어를 뽑고 한국 학생은 필리핀 단어 뽑은 후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진 학생 둘이 파트너가 되어 프로그램 내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어가 한 카테고리에 묶이는데 같은 카테고리로 묶이는 사람들이 같은 조가 되어 그 분야에 대한 한국의 유명한 관광지과 필리핀의 유명한 관광지를 서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조 전체가 앞에 나와서 다른 조 학생분들께 자신의 조 관광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간에 필리핀 학생분들이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필리핀 인사말이랑 기본 단어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파트너를 잘 만난다면 연락을 꾸준히 하고 만날 수 있는 필리핀 친구를 사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경국립대 학생분들과 같이 함)

4. Sinagtala(토): 다른학교 학생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처음으로 한 주말 activity 활동입니다. 버스타고 약 30분 정도 가면 산 위에 있는 activity체험장에 갑니다. 하늘자전거, 짚라인, 스카이 스윙, 스카이 브릿지 체험이 있었는데 체험을 하려면 개인 사비로 해결해야합니다. 점심은 담당 선생님과 함께 현지 음식점에 가서 해결했습니다. (개인 사비로 점심 해결해야 함) 산 위에 있는 곳이라서 뷰가 매우 좋고 무료로 운영되는 수영장이 있는데 시설도 깨끗하고 인생 사진과 프로필 사진 찍기 좋습니다. 샤워시설도 잘 되어 있어 수영하기 좋았습니다.

.2주 1. Group activity(화): 2주차 액티비티 시간에는 필리핀 전통 게임과 이쑤시개 컵에 넣고 빨리 빼기 게임, 제시된 장소 및 단어 묘사하기 활동을 했습니다. 2개의 그룹을 랜덤으로 정해서 진행됨으로 팀 선정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4. Subic yacht tour(토): 수빅으로 요트투어를 갔는데, 버스로 한시간쯤 걸렸습니다. 차 멀미를 할 가능성도 있으니 멀미를 하시는 분은 꼭 멀미약 미리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요트는 약 2시간 정도 탔는데, 요트 타고 어느 포인트에 멈춰서 30분 정도 수영을 하거나 사진을 찍은 후 다시 돌아오는 코스였습니다. 물이 깨끗하고 날씨도 좋아서 바다에서 수영하기 좋았습니다. 수영복과 수건 꼭 챙기세요. 선크림을 꼼꼼히 바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 멀미가 있는 분은 요트 타기 전에 멀미약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트 투어 후에는 저녁 7시까지 자유시간이어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 때 사용하는 돈은 모두 사비입니다. 점심은 학교 학생들, 담임 선생님과 유명 스테이크 집에 갔습니다. 대기 시간이 1시간으로 길었지만 양도 많고 음식이 맛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쇼핑몰에

	<p>가서 기념품을 사거나 수빅 해변가에 가서 사진을 찍어도 됩니다. 쇼핑물이지만 생각보다 기념품과 살 것이 별로 없어 아쉬웠습니다. (한경국립대 학생분들과 같은 요트를 이용했고 단국대, 한경국립대, 목포해양대 학생분들과 함께 이동했습니다.)</p> <p>.3주차 1. festival(목): 마지막으로 진행한 활동으로 순천향대, 우송대, 단국대, 한경국립대, 목포해양대 학생분들과 함께 랜덤으로 팀이 구성되고 그 팀으로 진행합니다. (팀이 구성된 후 활동 전 날 밤에 팀 구호 만들기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전시간에는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총 10개의 부스를 전부 체험하면서 퍼즐조각을 모아야 했습니다. 체험은 주어진 과자, 사탕 다 먹기, 수영장에서 동전 찾기, 주스 빨리 마시기, 간단한 수학 문제 풀기, 영어 단어 찾기, 발을 사용하여 구슬 옮기기, 젓가락을 이용하여 사탕 옮기기, 컵 안에 공 넣기 등 10개의 체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퍼즐 조각을 모은 후 달걀 주고 받기 게임을 했습니다. 남/남, 여/여, 남/여로 진행되며 각 팀에서 진행자를 선정 한 후 달걀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모든 팀이 성공을 하면 서로의 거리가 점차 멀어지게 됩니다. 날달걀로 진행되는 게임이라 새 옷 말고 전에 입던 옷으로 갈아입고 하시면 좋습니다. 달걀을 서로 못 받아 깨지면 탈락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상품은 없었습니다.) 오후시간에는 실내에서 진행됩니다. 필리핀 전통 음식, 춤 등 선생님께서 직접 필리핀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 필리핀 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필리핀 전통 춤을 추는 공연이 있습니다. 공연을 본 후 각 팀 별로 모여 주어진 필리핀 전통 춤을 배우고 모든 팀이 돌아가면서 앞에 나와 직접 춤을 추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각보다 춤이 어려워서 힘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교실에 구성되어 있는 미니 노래방, 고리 던지기, 풍선 맞추기, 사격, 빙고 게임, 필리핀 사탕 만들기 부스가 있어 자유롭게 즐겼습니다.</p> <p>2. Graduation & MMC festival(금): 3 그룹이 각각 다른 테일러 스위트 노래를 가지고 뮤직 비디오를 3주간 만들고 나서 공개하는 MMC festival을 했습니다. MMC 시간에 기획하고 촬영, 편집을 한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모든 조가 열심히 만들고 기획도 재밌게 해서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난 후에 수료식(졸업식)을 했습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필리핀도 겨울이라 모든 날이 맑았고 비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낮에는 덥고 자외선이 강해 선크림을 바르면서 다녔습니다. 저녁에는 쌀쌀하고 바람이 불때도 있어 바람막이 또는 얇은 외투 꼭 챙겨가세요.
안전	첫날 City투어 할 때는 시청 보안관분들께서 함께 따라다녀주십니다. 필리핀 마트, 백화점, 가게를 가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입구에서 경찰 또는 보안 직원분께서 가방검사를 하거나 앞에 상주해 있으셔서 안전합니다.

	단 개인 귀중품은 가방에 담아 철저히 챙기세요.
숙소	숙소는 3인 1실, 4인 1실로 구성되었습니다. 4인 1실은 화장실과 샤워실이 각각 2개씩 있었습니다. 3인 1실은 화장실, 샤워실이 각 1개씩만 있어 씻는데 오랜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샤워실 수압이 약해 씻는데 오랜시간이 걸렸습니다. 샤워실 겸 화장실 문 밑부분이 뚫려 있으니 참고하세요. 에어컨도 있어 시원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1~10까지 온도 설정 기능이 있는데 잘 때는 4 또는 5로 온도를 맞춰놓으셔야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화장대 있고 옷장도 크고 넓어 사용하기 좋았습니다. 오래된 느낌의 숙소라 초반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편안하고 괜찮았습니다.
식사	평일, 토,일요일 아침,점심,저녁 3끼 다 학교에서 챙겨줍니다. 필리핀 현지 분께서 식사를 만들어주시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파게티가 가장 맛있었습니다. 밥과 김치, 과일은 자율배식으로 진행되었고 고기, 치킨 등 인기메뉴, 국은 현지 분께서 직접 배식해주셨습니다. 아침 식사는 보통 간단하게 빵과 샌드위치, 스프가 많이 나왔습니다. 점심 식사는 과일이 자주 나왔고 제육볶음, 치킨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비빔밥, 비빔국수, 잔치국수, 김밥, 라볶이, 스파게티 등 맛있는 메뉴가 자주 나왔습니다. 평일 저녁과 주말에는 독방에 식사를 할 인원을 조사하기 위해 투표가 진행됩니다. 투표를 하셔야지 여유롭게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져 배식에 어려움을 겪은적도 있었습니다.
교통	주말에 단체로 이동할때는 학교 측에서 준비한 버스로 이동을 합니다. 평일 및 개인자유시간때는 트라이시클을 이용해야하는데 기본요금은 50페소부터 시작됩니다. 거리에 따라 적당히 흥정하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트라이시클은 오토바이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매연 냄새가 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매연 냄새를 싫어하시는 분은 마스크를 착용 한 후 타시면 됩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2,854,06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eTA (전자여행허가)	CAD 7\$	출국 전 본인이 직접 신청
여행자보험	41,37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3주 동안 지출	350달러(2/22일 기준 46만원)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출국 전에 반드시 개인별 상비약을 꼭 챙겨오거나 반드시 병원에 가서서 처방 받고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들 안 아플 줄 알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1번씩은 아팠습니다. 물갈이, 열, 복통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복통, 지사제, 두통, 해열제 넉넉하게 챙겨가세요. 요트 투어때 배 멀미를 할 수 있으니 멀미약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기향(전기)로 되어 있는거 챙겨오시면 숙소에서 모기 물릴 일 없습니다. 필리핀 공중화장실에는 대부분 휴지가 없습니다. 여행용 휴지 꼭 준비하세요. 와이파이가 되는 장소가 있으니 노트북, 아이패드 가져와서 공부, 영화감상 해도 됩니다. 3주동안 수업 선생님들과 정이 많이 듭니다. 한국에서 선생님 선물을 챙겨오거나 편지지를 가져오면 좋으니 참고하세요. 환전은 될 수 있으면 현지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현지에서 했는데 수수료도 적고 생각보다 환전 할 수 있는 곳이 많아서 현지에서 환전하는걸 추천합니다. 짐 최대한 적게 가져오세요. 주 3회 세탁 서비스도 있습니다. 옷 적게 가져가셔도 상관 없습니다. 수화물이 개인당 20kg로 정해져 있고 현지에서 기념품, 식품 등을 사다보면 생각보다 짐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용하고 버리고 갈 것으로 개인용품 챙기시는 걸 추천합니다. 학교 내에는 금주해야하고 정해진 곳에서만 흡연해야하니 참고하세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처음에 어학연수에서 영어를 배워온다는 목적을 가지고 출국을 했다. 영어 실력도 프리토킹으로 늘었지만 내 자신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3주라는 기간이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길게 느껴졌지만 막상 적응하고 나서는 짧게 느껴졌고 더 열심히 지낼 수 있었다. 필리핀에서 토익스피킹을 처음 해보았는데 초반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선생님들과 함께 방과후에 밥 먹으러 가고 사진 찍으면 큰 추억이 되니 꼭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자유시간을 통해 학교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수영과 바비큐를 통해 더 친해지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선생님들과 짧은시간동안 정이 들어서 헤어지기가 힘들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1:1 수업 강의실



학교 주변 도로 및 풍경



아시안컵 경기 시청



시청에서 찍은 사진



저녁식사



Sinagtala 수영장 사진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임 x x	학번	2023 x x x x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발랑가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23.1.28.(일)~2.17(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으로 파견을 갔지만 대학교에서 새 생활하는게 아닌 클락공항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져있는 Lavista라는 리조트에서 생활했다.
수업	9시부터 수업이 시작되며, 오전 3시간 수업 오후 4시간 수업으로 나뉘어져있다. 각 개인마다 그룹수업이 4개 1:1수업이 3개이고 10분씩 쉬는시간이 있다. 그룹 수업은 토익스피킹, 뮤직비디오 제작위주의 수업이고, 1:1수업은 리딩위주의 수업이었다. 선생님들이 모두 다 친절하고 텐션이 높아서 수업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빨리 적응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대화할 때 영어를 쓰기 때문에 영어가 늘 수 밖에 없다.
Activity	GETTING TO KNOW: 필리핀에 도착한 두 번째 날 같은 학교 학생들과 게임을 통해 서로의 이름을 외우고 친해지기 위해 진행된 활동이었다. SINAGTALA: 첫 주말 Activity로 짚라인, 스카이바이크, 스카이그네,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다. BUPS intercultural: BPSU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파트너를 만들어 서로나라의 문화를 설명하는 다양한 게임을 했다. SPORTS day: 둘째주 화요일날 진행된 행사로 학교 내에서 팀을 나누어 여러 가지 게임을 하는 활동을 했다. Yacht Tour: 마지막 주말 활동으로 수빅으로 가서 요트투어를 진행했다. 약 2시간 정도의 요트투어를 하고 저녁까지 수빅에서의 자유시간이 주어진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필리핀에선 겨울이지만 항상 평균 30도였다. 그래도 실내는 항상 에어컨이 켜져있고 저녁엔 쌀쌀하니까 긴팔이 필요하다. 더워서 딱 수영하기 좋은 날씨이다.
안전	숙소 앞에 항상 문지기분이 계셔서 도로를 건너거나 트라이시클을 잡을 상황이 생기면 다 도와주신다. 마트나 백화점엔 입구에 경찰이 있어서 안전하다.
숙소	숙소는 리조트를 사용하였고 3인 1실이다. 1인1침대이고 옷장한개와 화장실 한 개가 있다. 빨래는 월,수,금마다 해주신다.
식사	식사는 아침 점심은 카페테리아에서 먹고 저녁은 선택이다. 카페테리아에서는 한식위주의 음식들에 필리핀음식이 같이 나와서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교통	주로 트라이시클을 이용하며 3인승이고 10분거리이면 70페소(약1700원)정도로 완전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2,854,06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eTA (전자여행허가)	CAD 7\$	출국 전 본인이 직접 신청
여행자보험	41,37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생활비	약 11000페소	
합계	약 1,286,182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최대한 약 많이 챙겨가기, 원래 잘 안아파도 거기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미리 대비해야한다. 실외는 덥지만 실내는 에어컨이 항상 켜져있어서 겹옷을 무조건 챙겨가야 한다. 카드 쓸 수 있는곳은 그냥 비자카드나 이트래블카드 쓰고 현금은 페소로 강 한번에 다 해가는게 번거롭지 않고 편한거 같다. 노트북이나 패드는 원래 잘 사용안하면 굳이 안가져가도 될거 같다. 샴푸나 린스등 생필품은 마트에서 사도될 거 같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처음에 다른 나라에서 공부를 해야하고 잘 하지 못하는 영어를 계속 써야 한다는 부담감에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걱정을 했던게 다 사라질만큼 너무 좋은 경험 많이 했다. 갔다 온 후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어학연수 목표였던 현지를 그대로 느끼고 문화를 배우오자는 목표 또한 달성한 것 같다. 선생님들은 영어를 못한다고 뭐라고 한적 아예 없고 자신감을 가지고 모르는 걸 물어보면 칭찬을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 낮아질 일이 전혀 없고 그저 편하게 놀아온다는 느낌으로 공부하면 된다. 필리핀 사람들은 항상 웃음을 짓고 어딜가나 인사를 해줘서 나 또한 성격에 영향을 받은 거 같다. 꼭 모두가 고민하지 말고 경험했으면 좋겠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STUDENT'S CLASS SCHEDULE					
Passport Name	LIM YUJIN		Soon Chun Hyang University		
English Name	SELENA		ELCIP Winter Camp 2023-2024		
TIME	CLASS	BOOK	TEACHER	ROOM #	
9:00-9:50am	GC	LET'S TALK 1	Teacher FLORA	GC-A02	
10:00-10:50am	GC	TOEIC SPEAKING	Teacher JAEM	GC-A05	
11:00-11:50am	1:1	INTERCHANGE 1 (UNIT 1-7)	Teacher MAE	RM B-18	
12:00-12:50pm	LUNCH BREAK				
1:00-1:50pm	GC	TOEIC SPEAKING	Teacher JAEM	GC-A05	
2:00-2:50pm	GC	MULTIMEDIA CLASS	Teacher SHEBA	GC-CD6	
3:00-3:50pm	1:1	EFL READING INTERMEDIATE	Teacher LOU	GC-A04	
4:00-4:50pm	1:1	INTERCHANGE 1 (UNIT 8-14)	Teacher ABBY	GC-B20	

시간표



GETTING TO KNOW



BPSU Intercultural



SINAGTALA



Yacht Tour



마지막 activity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이 x x	학번	2023 x x x x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필리핀,발랑가 시티
파견대학	BPSU(바탄반도주립대학교)	기간	2024.01.28.~02.17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리조트 안에 학교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작았지만 공부하는데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수업	월~금. 매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업을 듣습니다. 처음에 본 레벨 테스트를 기점으로 반이 나뉘지고 그 반에 따라 스케줄이 다릅니다. 주로 반끼리 듣는 수업과 필리핀 선생님과 1:1로 듣는 수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업이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과제는 같은 반 팀원들과 뮤비 촬영하고 편집해서 제출하는 것인데 같이 하다 보니 더 친해지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Activity	첫주의 액티비티는 시티투어, 두 번째는 시냇탈라, 세 번째는 요트 투어를 갔다왔는데 사람들과 더 친해질 수 있고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덥지만 습하지 않아서 괜찮고 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좋았습니다. 비도 3주 내내 안 와서 너무 좋은 여름의 날씨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안전	밤마다 순찰차가 돌고 선생님들도 같이 숙소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숙소	숙소의 퀄리티는 좀 떨어집니다. 벌레도 많고 청결도도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 또한 적응하니 괜찮았습니다.
식사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급식은 필리핀식과 한국식이 섞여서 나오는데 먹을 만 했습니다.
교통	트라이씨클이나 버스를 타고 주로 이동하는데 트라이씨클보다 버스가 좌석이 더 편리합니다. 하지만 트라이씨클은 직접 그 장소까지 데려다주니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2,854,06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eTA (전자여행허가)	CAD 7\$	출국 전 본인이 직접 신청
여행자보험	41,37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기념품비	100,000원	
교통비	20,000원	
식비	200,000원	
합계	320,0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모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기약은 필수로 챙기면 좋습니다. 또한 약도 많이 챙기면 좋을 거 같아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솔직히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많이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경험과 추억이 쌓인 거 같아서 너무 좋고 필리핀 선생님들이 정이 많으셔서 떨어질 때 너무 아쉬웠어요. 확실한 건 갔다 오면 후회하는 사람들은 절대 없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요트 투어



시냇탈라



<p>시냇탈라 2</p>	<p>학교</p>
	
<p>시티 투어</p>	<p>숙소 근처</p>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성 x x	학번	2021 x x x x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바타안 발랑가 시티
파견대학	BPSU(BGC)	기간	2024.01.29 - 2024.02.17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수업하는 건물안에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와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파티션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p> <p>교실이라고 불리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벽이 있고 문이 있는 그런 교실 이라기보다는 파티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룹 수업을 진행하는 교실 은 넓기에 상관 없지만, 1:1 수업을 하는 공간은 덩치가 있다면 좁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1:1 수업 책상이 작다는 것 빼곤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p>
수업	<p>수업은 오전 9시에 시작해 오후 4시 50분에 끝납니다. 고등학교처럼 50분 수업 후 10분 쉬는 시간을 가집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레벨테스트를 보고, 레벨테스트 점수를 기반으로 그룹을 만들어줍니다. 그룹 수업과 1:1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룹수업은 총 4시간, 1:1 수업은 총 3시간입니다.</p> <p>그룹 수업의 경우 토익 스피킹 2시간, Let's Talk 수업 1시간, 그리고 영상을 제작하는 MMC 수업 1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토익 스피킹의 경우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진행합니다. 1:1 수업의 경우 Reading 1시간, 그리고 Interchange 2시간을 하는데, Interchange의 경우에는 2시간이지만 시간당 선생님이 다릅니다.</p> <p>토익 스피킹 외에는 수업을 한다가 보다는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눈다는 느낌이 강해 프리토킹을 하는 느낌이라 좀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1:1이라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1:1 수업에서 필리핀 현지 음식이나 문화 등에 대해 더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 좋았습니다. 또한 영어 말하기를 더욱 편안히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p> <p>MMC 수업의 경우 뮤직비디오 제작을 하는 시간인데, 이때 만든 뮤직비디오는 프로그램 종료 후 순위를 매깁니다. 다만 우리학교는 3주 파견을 가기 때문에 제작 기간이 굉장히 짧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50분씩 촬영을 하고 방과후에 편집을 하기는 하지만 방과후에 나름대로 일정들이 많아 제시간 안에 끝내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팀들이</p>

Activity	<p>MMC 비디오 제출 마감 당일 밤 까지 편집을 하기도 했습니다.</p>
	<p>3주 파견 프로그램이었던지라 4주 프로그램인 타 학교에 비해 조금 적게 액티비티를 즐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p> <p><주말(토요일) 액티비티></p> <p>주말 액티비티의 경우 차를 타고 30분 이상 이동하기도 하고, 필리핀 도로의 특성상(포장도로여도 도로가 파여져 있거나 울퉁불퉁한 경우가 있습니다) 차멀미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멀미약을 꼭 섭취하길 권장합니다.</p> <p>1. Sinagtala</p> <p>첫주 토요일에 갔던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짚라인, 하늘그네 같은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고, 수영장도 있어 수영을 즐길수도 있습니다. La Vista에서 이곳까지는 버스로 대략 1시간 정도 걸립니다.</p> <p>액티비티의 경우 몇 개를 지정해서 따로 티켓을 구매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ide all : 900페소 - Bridge + Swing/Bike : 300페소 - Bike + Swing : 400페소 - Bridge + Zip line : 500 페소 - Zip Line + Bike/Swing : 600페소 <p>환전 하실 때 위 금액을 참고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p> <p>개인적으로 짚라인과 하늘그네를 추천합니다. 다만, 짚라인을 타고 내려가 다시 올 땐 트랙터 같은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이때 먼지가 많이 날리니 일회용 마스크 하나를 준비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짚라인은 낙산 같은걸 착용해서 생각보다 속도는 빠르지 않고, 주변 풍경을 구경하기에 좋습니다. 하늘 그네의 경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몸무게가 나가는 사람과 타면 더 많이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풍경 구경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p> <p>수영장의 경우 앞쪽으로 넓은 자연환경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구조이고, 주변에 야자수 나무도 있어 사진찍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샤워실 겸 탈의실은 가까운 곳에 있어 옷을 갈아입기에 편합니다. 참고로 샤워실과 수영장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p> <p>Sinatata 근처에 "Nanay Susan's Lomi" 라는 식당이 있는데, 필리핀식 라면을 파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Lomi 라는 필리핀 음식을 맛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 가격은 60페소입니다. 다만 이곳 정수기 물은 조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 정수기 물 섭취후 물갈이를 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곳에서 생수를 사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Sinatata에서 식당까지 왕복하는 길이 너무 덥다면 트라이시클을 타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트라이시클 가격이 싸기 때문에 한번 쯤 타볼만 합니다. 저희는 3명에서 편도로 40페소에 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p>

2. Subic Bay

수빅베이의 경우 La Vista에서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처음 버스에서 내리면 요트를 타러 가는데, 이때 잠시 쉬는 시간을 줍니다. 근처에 "Subic Fishing and Yacht Charter"이라는 상점이 있는데, 이곳에서 물과 간식을 살 수 있으니 요트에 타기 전 물 등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처에 화장실이 있으나 깨끗하지는 않기 때문에 차라리 요트 안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트를 타게 되면 계속해서 햇빛에 노출되니 썬크림을 잘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트 뱃머리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가장 예쁘게 나옵니다.

요트 투어를 하다보면 수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10분밖에 주지 않으니 미리 준비하라고 할 때 준비해서 바로 들어가서 10분동안 바다를 즐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멍조끼는 빌려주고, 너무 무서워한다 싶으면 구멍 튜브를 던져주시니 구멍 튜브를 잡고 바다 수영을 즐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바다가 맑고 투명한데 생각보다 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요트 안에 샤워실이라고 따로 불리는 곳은 없고, 요트의 야외쪽에 샤워기 하나가 설치되어 있어 남자 분들은 씻는데 지장이 없겠지만 여자들은 씻기 힘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소금기만 걷어내고 수건으로 닦아내는 수준으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수영을 즐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트 투어 이후에는 자유시간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버디선생님과 함께 Texas Joe's"라는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필리핀 평균 물가를 생각하면 가격대는 조금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맛있으니 추천합니다.

이후에는 "Habor Point by Ayala Mall"에 갔는데, 생각보다 기념품은 살게 없어서 금방 나왔습니다. 근처 바닷가로 가면 노을 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풍경이 정말 장관이니 꼭 일몰 시간을 맞춰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녁식사는 이곳에서 모두 마친 후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하니 늦지 않게 저녁식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만, 만약 시간이 부족하다면 아주 간단한 저녁식사를 하거나 숙소에 돌아가 식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각보다 수빅베이에 할 것들이 많아 주어진 시간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평일 액티비티>

평일 액티비티는 대부분 자스민 홀에서 이루어집니다. 24년 동계방학 필리핀 어학연수때엔 매주 화요일에 진행됐습니다.

1. Get to know

첫주 평일 액티비티입니다. 제목처럼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서로의 얼굴그리기, 취향 알기, 이름 외우기, 팀별 게임 등을 합니다. 이때 거의 이름을 외우게 됩니다. 학생들 뿐 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이름도 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액티비티를

	<p>할때에는 소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이름을 빠르게 외우는 것이 3주간의 필리핀 생활을 함께 얼마나 잘 즐길 수 있는지를 좌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p> <p>2. Group Dynamics</p> <p>2주차 그룹 액티비티입니다. 이 액티비티를 진행할 때 쯤에는 서로가 다 친해진 상태라 이전의 Get to know 액티비티때 보다 더 활발한 게임이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Get to know 액티비티때의 그룹 활동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술하는 내용을 팀원들이 몸으로 표현하기, 수건 빙고, 이쑤시개 병에 담고 빼기 등 협동심을 더욱 발휘해야 하는 활동들을 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더욱 즐거운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p> <p>3. Season's Festival</p> <p>3주차 그룹 액티비티입니다. 이 액티비티의 경우 타 학교들과도 함께 하는 액티비티였고, La Vista 전체를 사용해서 게임을 했습니다. 타 학교들과 섞여 팀이 구성되었고, 팀 구호와 플랜카드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오전에는 릴레이 형식의 게임이 진행되었습니다. 게임은 발로 구슬 옮기기, 수영장에서 공 줍고 5페소 찾아내기, 음료수 마시기, 수학문제 풀기 등 다양한 게임이 있었습니다. 야외 활동이 끝나면, 실내에서 필리핀 전통춤 공연을 관람하고 그것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공연 이후에는 강의실 구간을 꾸며 노래방, 필리핀 우유 사탕 만들기, 사격 게임, 풍선 터뜨리기 게임, 빙고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한켠에서는 기념품을 팔고 있으니 참고하여 구매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필리핀의 겨울 날씨는 한국인에게 덥거나 적당한 정도입니다. 점심 때 쯤 (11:00~15:00)엔 햇빛이 뜨겁기 때문에 덥다고 느껴지지만, 오후가 되면 웬만해선 땀이 나지 않을 정도로 무난한 날씨입니다. 필리핀의 겨울은 건기이기 때문에 3주동안 비는 한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10번중 9번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고, 한 번 정도 구름 낀 흐린 날씨였습니다. 수영하기에 굉장히 좋은 날씨이지만, 가끔 밤에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밤 수영을 즐기기엔 추울 수 있습니다.</p> <p>습하지 않은 계절이기 때문에 햇빛만 피한다면 조금 시원할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햇빛에 의해 뜨거워진 공기 때문에 덥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햇빛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선크림과 선스프레이, 팔토시는 필수입니다. 추가적으로 알로에를 가져오거나 현지에서 사면 더 좋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안전</p>	<p>우려했던 것과 달리 굉장히 안전한 편입니다. La Vista 리조트 게이트 앞을 지키고 계시는 분이 한 분에서 두 분 정도 계시고, 여기서 더 걸어나가면 '마살 오피서'라고 불리는 시티 경찰분이 항상 초소에서 상주하고 계십니다. 게이트 앞을 지키고 계시는 분들은 학생들의 출입 여부를 항상 체크하시고, 마살 오피서는 La Visat 리조트에 드나드는 (학생들이 탑승한) 트라이시클 번호판을 항상 기록하십니다. 또한 마살 오피서는 학생들이 리조트 앞 하이웨이를 건널 때 건너는 것을 도와주시기도 합니다.</p> <p>이곳에는 신호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 상황을 주시하며 조심히 건너야 합니다. 특히나 리조트 앞은 하이웨이이기 때문에 차들이 굉장히 빠르게 달리니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마살 오피서가 도와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p> <p>하이웨이 건너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크게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몰 후 필리핀의 골목을 다닐때는 어두워 보이는 곳은 혹시 모르니 꼭 여럿이서 함께 지나가거나, 웬만해서는 큰 길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필리핀은 한국처럼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거나 가게들이 늦게까지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숙소</p>	<p>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처음 화장실을 봤을 땐 조금 실망했었지만, 이후 이 숙소 바깥의 화장실이 정말 최악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정말 깔끔한 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화장실과 방 청소를 이틀에 한번 해주시기 때문에 청결도 유지는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샤워실의 경우 샤워커튼이 있고, 가끔 샤워필터가 끼워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항상 따뜻한 물이 나오는데, 가끔 굉장히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p> <p>침대는 방에 개인 침대로 3개가 있었고, 모든 침대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제 침대의 경우 조금 딱딱한 편이었지만 허리가 배길 정도로 딱딱하진 않았습니다. 이불과 베게는 제공되나, 이불은 침대에 까는 이불처럼 굉장히 얇은 천입니다. 저는 추위를 덜 타는 편이라 그냥 그대로 사용했지만, 추위를 잘 타는 편이라면 버디 선생님께 말씀드려 조금 두꺼운 이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소에서는 습기 때문에 항상 에어컨을 틀어두고 생활하게 되는데, 이때 얇은 긴팔 긴바지를 입고 취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기관지가 약한 편이라면 얇은 스카프를 두르고 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p> <p>숙소 내에서는 신발을 신고 생활하게 되며, 옷장과 화장대가 있어 물건과 옷을 캐리어에서 꺼내두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겨울이라 그랬는지 벌레는 많지 않았으며, 가끔 정말 작은 크기의 도마뱀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숙소에도 도마뱀이 나오긴 했지만 작은 사이즈라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열대기후라 모기가 많고 독하기 때문에 항상 방안에 전자식 모기향을 켜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변환기가 꽂혀진 멀티탭은 기본으로 1개가 제공되지만 굉장히 짧기 때문에 룸메이트와 사전 상의 후 여분으로 더 가져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변환기는 1~2개만 있으면 괜찮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식사</p>	<p>센터에서는 항상 3끼가 제공됩니다. 메뉴는 매일 저녁에 버디선생님이 사전에 알려주시고, 평일 저녁과 주말 점심 저녁은 사전에 투표를 통해 식사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센터 내 식사의 경우 기본 한식에 필리핀 음식이 한 두가지가 나옵니다. 한식은 한국에서 먹는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맛있습니다.</p> <p>개인적으로 저녁식사는 밖에 나가서 사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센터 내 식사는 한식과 필리핀식이 8:2의 비율로 제공되기 때문에, 필리핀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는 외출하여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Vista 몰이나 Walter 마트, SM 몰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p> <p>이 외에도 다양한 식당들이 있고, 선생님들에게 식당을 추천받아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한식당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니 한식을 먹고 싶다면 한식당들을 찾아가는 것도 방법입니다.</p> <p>배달도 가능한데, 'Food Panda'라는 어플을 이용하면 센터로 배달을 시킬 수 있습니다. 배달료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현금결제도 가능하니 카드가 없는 경우 현금 결제로 체크 후 주문하시면 됩니다.</p> <p>필리핀에서는 물과 얼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석회질 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은 꼭 생수를 사먹는 것을 권장하며, 얼음은 웬만해선 안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이스 음료를 주문할 때 얼음을 빼달라 하면 빼주기 때문에 주문시 반드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이 때문에 물갈이로 다른 학생들이 고생하는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강조하고 싶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교통</p>	<p>교통은 편리하면서도 불편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지에서 개인적으로 이동할 때는 트라이시클과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p> <p>1. 트라이시클</p> <p>트라이시클의 경우 오토바이 옆에 사람이 두명 정도 탈 수 있는 의자를 두 개 달아놓은 형태입니다. 보통 한 명은 운전자 뒤, 두 명은 오토바이 옆에 탑승하게 됩니다. 일반적이진 않지만 가끔 4명이 트라이시클에 탑승하기도 합니다. (운전자 뒤 한 명, 오토바이 옆에 3명) 이곳에는 택시가 없기 때문에 트라이시클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3명 탑승 기준 최소 60페소에서 최대 100페소까지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가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같은 목적지라고 할지라도 트라이시클 기사들 마다 부르는 가격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 흥정을 항상 해야 합니다. 트라이시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6번에서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p> <p>2. 버스</p> <p>마살 오피서에게 목적지를 말하고 버스를 타고 싶다고 하면 버스를 잡아줍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모든 버스는 SM몰에 있는 버스터미널로 향</p>

하기 때문에, SM몰 근처 변화가에 가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버스를 추천합니다. 저의 느낌으로는 트라이시클과 시간은 크게 차이나지 않으며, 15페소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후에 6번에서 다시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636,8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SSP(학생연수허가서)	150,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여행자보험	37,95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SIM 카드 충전비(3번)	297페소	카드결제
미 달러	300달러	미달러 환전 후 현지에서 페소 환전
페소(비상금)	120페소	가지고 있던 페소
페소 (카드)	1,751.75 페소	트레블 월렛 카드 이용
합계(사전 비용 제외)	450,346.25원	18,922.11페소 / 338.840달러

5. 출국 전 준비사항

1. 환전금

파견 전에 환전은 300달러에서 400달러정도 해오면 됩니다. 음주를 많이 즐기지 않으면 300달러면 딱 맞게 쓸 수 있습니다. 400-500달러를 가져오면 음주와 기념품 등을 충분히 사고 남습니다.

2. 카드

필리핀에서는 마트 등 대형 쇼핑몰이 아니면 카드를 쓸 수 없으나, SIM 카드 충전이나 돈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트레블월렛 카드를 발급받아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스터 카드나 비자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지만 이중환전으로 추가금이 나올 수 있으니 트레블월렛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SIM카드 충전시 카드가 없으면 센터 바로 앞 VISTA MALL에 직접 가서 현금으로 충전해야 하며, 금액 단위가 정해져 있고 본인이 충전금을 다 사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단위의 데이터 패키지를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카드를 사전에 발급해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3. 모기 기피제 및 모기약

필리핀은 열대기후를 가진 국가인 만큼 벌레가 많습니다. 특히나 모기가 정말 많은데, 제 느낌으로는 한국 모기보다 더 세기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가렵습니다. 때문에 평상시에 모기 기피제를 바르고 다니고, 물렸을 경우 바로 약을 바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방 안에서는 항상 전자 모기향을 켜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기 기피제는 바르는

형, 팔찌형, 패치형 등 최대한 많이 모두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과할 정도로 많이 챙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 가져오지 못했다면, VISTA MALL에서 올리브영 같은 약국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OFF!'라고 쓰여져 있는 모기 기피제를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흰 병에 초록 뚜껑, 주황색이 있는 제품입니다.

4. 작은 티슈나 휴지

생각보다 쓸 일이 많습니다. 필리핀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긴 하지만 챙겨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나 카페테리아에서 식사 시에 쓸 일이 많습니다. 또한 센터 내 화장실에 가면 화장지가 있긴 하지만 사람이 많아 금방 동이 나기 때문에, 화장지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5. 멀티탭

멀티탭은 필수로 가져와야 합니다. 방 마다 다르겠지만 콘센트를 꽂을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당 1개씩은 무조건 가져와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멀티탭이 1개 있지만 선이 짧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유분으로 1개 정도 더 가져오면 사용하기 편합니다. 또한 멀티탭을 연결한다 하더라도 발 밑에 놓고 써야 하기 때문에 더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총 2개를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룸메이트 분들과 상의해서 가져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6. 샴푸 및 컨디셔너

샴푸와 컨디셔너의 경우 가져온 것을 첫날만 사용하겠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작은 것을 가져오고 현지에서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각자 사기 보다는 룸메이트 분들과 함께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필리핀의 날씨가 덥기도 하고 수영을 자주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샤워를 매일 여러번 하게 될 수 있기는 하지만, 개인별로 샴푸를 사게 되면 마지막 날 반드시 버리고 오게 되기 때문에 룸메이트들과 함께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7. 슬리퍼 및 샌달

생각보다 신을 일이 많습니다. 다만 버리고 가도 괜찮은 것을 가져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에 돌아올 때 생각보다 짐이 많아서 버리고 가야 할 것들이 많아지는데 그 중 하나가 슬리퍼가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현지에서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퍼블릭 마켓에 가게 되면 99페소(한화 약 2천원)로 슬리퍼를 구매할 수 있고, 크록스의 경우 200페소(한화 약 5천원)로 구매 할 수 있습니다.

8. 스킨 로션

쓰다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가져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앞서 말했듯 한국에 돌아갈 때 버리고 가게 되는 것이 많아지는데, 그 중 가장 많이 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액체류입니다. 크기에 비해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9. 선크림 등

필리핀의 햇빛은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그렇기에 선크림은 필수입니다. 선크림은 충분

히 가져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능하다면 선스프레이를 가져오는 것 또한 추천합니다. 항상 반팔 반바지를 입고 활동하게 되기 때문에 팔다리에는 선스프레이를 이용해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추가적으로 팔토시를 가져오는 것도 추천합니다. 자외선 차단 뿐 만 아니라, 더위를 가라앉혀주기 때문입니다.

10. 각종 약

저는 필리핀에서 사용할 일은 없었지만 같이 간 친구들을 지켜본 결과 약을 필수적으로 가져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나 지사제와 해열제는 반드시 가져오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물갈이로 심하게 고생하기 때문입니다. 물갈이를 하게 되면 복통과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지에서 병원을 갈 수 있지만, 병원을 가게 되면 1,000페소 이상으로 돈이 깨지기 때문에 한국에서 약을 가져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추가적으로 쿨패치를 가져오면 열이 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1. 선물

현지에서 생활하다보면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쌓게 됩니다. 현지 대학생 친구와도 친분을 쌓게 되고 무엇보다 선생님들과의 유대관계가 생각보다 깊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헤어질 때 다들 선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 원래부터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편지쓰는 것을 좋아하여 한국에서 사전에 준비해갔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현지에서 선생님들에게 드릴 선물을 구매하긴 했지만, 확실히 한국에서 준비해가는 것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편지와 편지봉투의 경우 한국에서 준비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에서도 편지봉투와 편지지를 판매하긴 하지만 질이 그렇게 좋지 않고 디자인도 그렇게 높은 퀄리티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구매했었습니다. 저의 경우 한국에서 편지지 노트와 한국 전통이 느껴지는 편지 봉투를 구매해 갔었습니다. 참고로 선생님은 1:1 선생님 3분, 그룹 선생님 3분, 그리고 버디 선생님까지 총 7명입니다. 그러나 같이 수업을 하지 않은 선생님들과도 자연스럽게 친분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넉넉히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12. 방수팩

물에 들어갈 일이 많기 때문에 방수팩을 가져오면 수영을 하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Sinagtala의 풀장에서 사진을 찍으면 정말 인생샷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방수팩을 가져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13. 동전지갑

현금생활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동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동전들을 보관하고 들고 다니기 위해서는 동전지갑을 가져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나 동전들은 트라이시클을 탈 때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3주간의 필리핀 생활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영어 말하기에 두려움은 없었으나 말하기의 디테일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필리핀에서의 3주는 저의 영어 말하기의 디테일을 채워주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은 언제나 저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시고, 저의 말하기 스킬을 교정해주셨습니다. 책을 통해 배우는 영어보다는 선생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배우는 영어가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은 한정적입니다. 그러나 대화를 통해 배우는 내용은 무궁무진합니다. 상황에 따라 더 고급 어휘를 사용해야 할 때도 있고, 모르는 단어를 사용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르는 단어를 대체할 말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설명하며 무언가를 영어로 설명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고 또 설명한 단어를 선생님들로부터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사제관계로 만났다 할지라도 한국에서와는 다르게 격없이 지낼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특히 선생님들과 함께 외출을 하거나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식사를 하며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거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 대학생들과의 교류에서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과의 대화에서 얻을 수 없는 부분을 얻을 수 있었고 더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현지 대학생들과의 교류는 필리핀에서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들과 계속해서 메신저를 통해 대화 할 수 있고 일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3주간의 필리핀 생활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수업이 끝나면 밖으로 나가 다양한 경험을 하고 같이 간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늘 수업이 끝나면 추가적인 공부를 하러 가거나 내 할 일이 바빠 여유를 즐길 수 없었으나 필리핀에서는 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여유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3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3주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안팎에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경험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매일 수영장에 들어가 함께 간 친구들과 수영하는 것 또한 좋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VISTA 물에 가면 비치볼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놀았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서의 시간은 저도 몰랐던 제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적극적인 성격이긴 했지만 먼저 나서지 않고 부끄러움을 잘 타는 성격이었지만 필리핀에서는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팀을 이끄는 등 더욱 활발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갈이를 하게 되면 최대 일주일 동안은 필리핀을 즐길 수 없는데, 저는 정말 다행히도 필리핀에서 물갈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필리핀을 더 없이 즐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파견을 가게 되는 곳은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거나 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트라이시

클 기사들이 요금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첫 주가 지나고 나면 트라이시클 가격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지만, 이후에 파견하게 되시는 분들은 사전에 트라이시클 가격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인원 : 3명

- 숙소 ~ SM MALL : 70-80페소

- 숙소 ~ Walter Mall : 60페소

- 숙소 ~ 퍼블릭 마켓 : 60페소

3인 기준 트라이시클 최저 가격(기본 가격)은 60페소이고, 최대 100페소 까지 나올 수 있으나 보통의 외출 반경범위를 감안하면 80페소가 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이상으로 금액을 부르면 차라리 다른 트라이시클 기사를 찾는 편이 좋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가격이 얼마냐고 먼저 묻기 전에 가격을 먼저 말하고 타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격에 확신이 안선다면 'Grap' 앱(카카오 택시 같은 어플)으로 먼저 가격을 알아보고, 해당 앱으로 트라이시클을 부르거나 해당 가격으로 트라이시클 기사에게 선제시를 해도 좋습니다. 다만, VISTA 몰 앞에 있는 트라이시클 기사 중 거스름돈이 없다며 돈을 거슬러 주는 것을 거부하는 기사가 있는데, 이를 대비하여 잔돈을 챙겨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는 어디를 가던 15페소입니다. 종착지는 SM몰에 있는 버스터미널이기 때문에 중심지로 나갈 때는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버스에 타서 앉아있으면 돈 걷는 분이 돈을 받으러 오시는데, 이때 얼마냐고 묻지 않고 15페소를 지불하시는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번 파견때 20페소를 내고 버스를 탑승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버스에는 창문이 없어 가끔 나뭇가지에 얼굴 등을 맞을 수 있으니 오른쪽에 탑승할 경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음식을 맛보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Sampalukan'이라는 식당을 추천합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필리핀 음식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도보 라이스를 비롯한 라이스 메뉴와 포크 시식을 시켜 먹었는데, 정말 많았습니다. 라이스 메뉴는 양이 상당히 많으니 3명 이상 나눠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레촌의 경우 과하게 튀긴 튀인지 좀 딱딱한 편이라 먹기 힘들었습니다. 만약 레촌을 먹고 싶다면 '비너리(Beanery)'에서 시켜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SM몰의 푸드코트에 있는 할로할로도 추천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즐겨먹는 음료로 맛있습니다. 맛은 두가지 맛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우베맛을 추천합니다. 필리핀에는 우베로 만든 간식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더 맛있으니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얌로얌로(Ilao Ilao)'라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도 추천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현지에서 마사지를 받으러 '유안스파'라는 곳을 많이 갑니다. 사전에 예약을 하고 가야 하며, 예약은 구글맵에 걸려진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마사지와 함께 풋스파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돈을 날리고 싶지 않다면 그 외의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네일아트 같은 것은 하지마세요.

저는 필리핀 3주 단기 어학연수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조금만 더 있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알차고 즐겁

게 보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필리핀 단기어학연수를 준비하면서 가서 영어 실력을 쌓아오자라는 생각만 할 만큼 영어 외엔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에서 제가 얻은건 영어 뿐 만이 아닙니다. 영어 실력은 물론이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사람들과 함께 다시 현지에서 그때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고민하지 않고 바로 하겠다고 답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센터에 우리학교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학교 학생들과도 친해질 기회가 생겨 새로운 사람과 친분을 쌓을 수 있었다는 점도 정말 좋았던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3주간의 기억들은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퍼블릭 마켓 과일 코너</p>	<p>퍼블릭 마켓 풍경</p>
	
<p>프라이빗 수영장에서</p>	<p>BPSU 문화교류 프로그램</p>



Sinagtala 인피니티 수영장



수빅베이 요트 투어



수빅베이



트라이시클



Sampalukan 식당



선생님들이 주신 선물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김 x x	학번	2023 x x x x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바탄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1/28~2/17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으로 한국인 밖에 없습니다
수업	1:1 수업과 그룹 수업이 있으며 50분 동안 수업하고 10분 쉬는 시간입니다. 그룹 수업일 땐 토익 스피킹 수업, 뮤직 비디오 만들기, 회화 시간이 있고 1:1 수업 땐 교재 나갑니다. 9시부터 5시까지 수업이라 조금 힘들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가세요
Activity	순천향대, 한경대, 우송대, 목포해양대 몇 명씩 섞어서 그룹을 만들어 하루 종일 게임하는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과 친해질 기회이고 재밌으니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필리핀에선 겨울이지만 진짜 덥습니다. 선크림 젤 강한걸로 발라도 다 타요.. 정말 다 탑니다.
안전	위험한 동네가 전혀 아니라 안전 했고 무엇보다 필리핀 분들이 다 착하고 친절하십니다
숙소	벌레와 도마뱀들이 자주 출현하지만 귀여워요
식사	급식으로 나오는 음식 거의 한국 음식이라 맛있었고 보통 수업 끝나고나 주말에 나가서 먹으니 드시고 싶으신거 드실 수 있으세요
교통	트라이시클 타고 다닙니다 가끔 버스 타고요 트라이시클 탈 때 가격 흥정해서 정말 저렴한 값에 이용 가능해요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636,8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eTA (전자여행허가)	CAD 7\$	출국 전 본인이 직접 신청
여행자보험	37,95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및 개인 소비	450,000원	환전
ssp	150,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합계	1,274,75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한국에서 생활할 때 웬만해선 아프지 않아 약을 하나도 챙겨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물이 우리나라 물이랑 달라 저뿐만 아닌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번씩은 꼭 돌아가면서 아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아프니 약을 꼭 챙겨 출국하세요.

또, 3주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더라도 막상 가면 혹 지나갑니다. 그리고 3주간 매일 붙어있던 선생님들과 이별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편지지 꼭 챙겨가셔서 마지막 편지 준비하세요. 선생님들도 마지막 선물이라고 많이 챙겨주십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가기 전엔 두려움이 앞섰지만 막상 가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3주가 혹 지나갔습니다. 한국 돌아오면 아쉬움도 많으니 가셔서 열심히 놀고 열심히 돌아다니세요. 하루 일과 중 수업이 끝나면 자유시간이라 같이 온 학생들과 매일 나가서 놀았습니다. 저도 친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로 갔지만 막상 가서 친해져 좋은 추억 만들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사람들과도 친해질 기회가 많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요트 투어</p>	<p>학교 내에 있는 수영장입니다 이곳에서 자주 놀아요!</p>



단체사진



우리 학교, 한경대, 우송대, 목포해양대 몇
명씩 섞어서 팀을 만들어 하루종일 게임
합니다



졸업식



수업 끝나면 이곳저곳 놀러다녀요!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윤 x x	학번	2020 x x x x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발랑가, 바탄
파견대학	BPSU	기간	1/28 - 2/17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BPSU에 가서 필리핀 친구와 짝을 지어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서로의 나라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 가지 게임을 하는 재밌는 경험이었다. 마지막에 서로 인스타도 교환하여 연락을 이어갈 수 있었다.
수업	수업은 아침 9시부터 오후 4:50분 까지 스케줄이 짜여있었다. 50분 수업에 10분 휴식, 점심시간 1시간이 꽤 적절했던 것 같다. 다만 풀 수업에 익숙해있지 않았던터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힘들고 체력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수업은 내용자체는 쉬운 편이었다. 배우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었고, 원어민 선생님과 대화하며 영어로 수업하는 것이 의미있었던 것 같다. 토익스피킹 시간에는 생각보다 배워가는 것이 많았고, 교재가 맘에 들었다. mmc는 번거롭고 팀원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색다른 경험이어서 재밌었다.
Activity	개인적으로 첫 번째 액티비티 때 간 곳이 풍경이 너무 예뻐서 좋았다. 다양한 놀이기구 같은 것들도 재밌어 보였는데, 컨디션 난조로 타지 못해 아쉬웠다. 두 번째 요트 투어는 사진 찍기에 좋았고, 좋은 경험이었으나, 수빅 쪽에 생각보다 기념품으로 살 것이 없어서 아쉬웠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겨울이라 생각보다 많이 덥진 않았으나 낮에 돌아다니면 땀이 날 정도이다. 습도는 우리나라 여름보다 덜 습했다. 밤과 낮 기온차가 있으나 밤에도 추울 정도는 아니었다. 다만 에어컨 바람 때문에 실내, 실외 기온차에 주의해야한다.
안전	생각보다 위험하다 느끼는 부분은 많이 없었으나, 길을 건너야 하는 상황에서 신호등이 없어 무서웠다. 꼭 안내해주시는 분을 대동하여 길을 건너야 한다.
숙소	숙소가 생각보다 넓고, 에어컨이 잘돼서 좋았다. 벌레도 거미 말고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화장실이 노후하고, 냄새가 났다. 또한 변기가 자주 막혀 불편했다.
식사	센터 내 식사는 개인적으로 갈수록 좋았다. 한국음식이 꽤 많이 나오는데 입에 잘맞아서 가끔 두 그릇을 먹곤했다. 배식해주는 분들도 친절해서 좋았다. 센터 밖에는 맛있는 식당이 많이 있으나 물을 주의해야하며, 가판대로 파는 주스는 물 안에 있다해도 피해야 한다.
교통	주로 트라이시클을 이용했다. 트라이시클은 생각보다 잡기 쉬웠고, 재미있었다. 가끔 신호가 없다보니 무서웠던 순간도 있었으나, 큰 사고는 없었다. 대신 가끔 트라이시클 기사가 가격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했다. 센터에서 SM까지는 70-80페소, 퍼블릭마켓까지는 60페소가 적당하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6368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SSP	150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여행자보험	3795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생활비 및 유심	약 300달러	식사, 교통, 유심, 선물
합계	1,224,750	

5. 출국 전 준비사항

생각보다 가서 물갈이 등으로 아픈 상황이 많이 발생하므로 꼭 장염약, 지사제 등을 충분히 챙겨야 한다. 경비는 400달러 이상으로 챙기면 폐소가 남을 것 같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매일 9시 첫 수업에 참여하고 11시 점호를 했다. 처음 일주일엔 재미있고 좋았는데, 5일 정도 아프고 나서는 체력이 조금 부족함을 느껴 피곤했다. 3주간의 수업동안 영어실력이 늘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발음에 대한 어느정도의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뿐만아니라 해외에서 장기간 타인과 지내며 나 스스로에 대해 돌아보고 부족함을 느끼며 앞으로 더 성숙해져야겠다 다짐했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의미있는 경험이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meng 선생님과 수업</p>	<p>일요일 자유시간에 간 퍼블릭 마켓</p>
	
<p>숯(울링) 사서 돌아오는 트라이시클 안</p>	<p>수빅에서 만난 친절함 택시 기사님</p>



수박에서 먹은 스테이크



제리 선생님이 준 선물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장 x x	학번	2022 x x x x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바탄(Bataan)
파견대학	BPSU(바탄주립대학교)	기간	3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바탄주립대학교와 연계된 BGC(Best/BPSU Global Center) 센터에 머물며, 대학교는 센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화교류를 위해 1회 방문했으며, 현지 대학생들과 함께 파트너 및 그룹을 이루어 활동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을 매우 환영해주었고, 여러 문화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업	<p>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체계적인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레벨 테스트 후 특별한 일이 없다면(Regular day), 하루에 3회의 1:1 수업과 4회의 그룹 수업이 있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토익 스피킹은 그룹 수업으로 이루어지며, 외에도 그룹별 뮤직 비디오를 제작하는 Multi Media Class 등 여러 분야의 수업이 진행됩니다.</p> <p>수업의 난이도는 레벨 테스트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Interchange 수업 때는 여러 문화와 생활(특히 한국과 필리핀)에 대해 이야기해볼 수 있고, Let's talk 수업 때는 선생님의 지도하에 그룹별로 특정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토익 스피킹의 경우, 예상보다 본격적으로 시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각 문항별 요령과 고득점 전략을 학습하고 매 수업마다 연습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저희 그룹의 경우 조원들의 설명을 듣고 사진을 연상해서 그려보는 등 게임으로 승화하는 즐거운 활동도 있었습니다. MMC 수업은 이론적으로 무언가를 배우기보단, 뮤직 비디오 제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매 수업 촬영 시간을 가집니다. 수업 때만으로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기에 영상 편집의 경우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귀국 전 졸업식과 함께 영상제가 있으므로, 출품작들을 감상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Reading 수업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가장 어려웠으나 회화적으로 배울 내용이 많은 수업이라 생각됩니다. 유용한 회화 표현들을 많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p>
Activity	<p>주말에는 외부로 나가서, 평일(주로 화요일)에는 센터 내부에서 Activity를 즐겼습니다.</p> <p>1. Sinagtala</p>

짙 라인과 하늘 그네(스카이 스윙) 등 여러 Activities 중 본인이 원하는 대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표는 미리 한 번에 끊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었고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경치가 좋은 수영장도 있으므로, 사진을 열심히 찍은 기억이 납니다. 버디 선생님과 주변에서 면 요리 '로미'를 점심으로 먹었습니다.

2. Yacht tour / Subic tour

요트 투어는 수빅에서 이루어집니다. 약 1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이동 후, 바로 요트에 탑승합니다. 중간에 바다 수영 시간이 주어지나 10분 정도밖에 안되므로, 미리 준비 후 바로 들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멍조끼와 튜브가 있고, 요원 분들이 수영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봐줍니다. 옷을 갈아 입을 수 있는 장소(요트 내 화장실)가 협소하여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으나, 감안할 만큼 즐거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요트 투어 이후에는 다 같이 식사(선택 가능) 후 자유시간이 주어졌지만, 집합 전까지 주어진 시간이 짧기에 모든 것을 충분히 즐기지는 못하였습니다. 기념품 구매를 위해 추가 환전을 해왔었지만, 기대보다 구매할 거리가 적어 다들 실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저의 경우 (좋은 택시 기사님을 만나) 50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Malawaan Park 등 주요 포인트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3. Getting to know, Group dynamic 등

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Activity들도 재밌게 즐겼습니다. 첫 주차에는 서로 알아가기 위해 이름과 얼굴을 외우는 활동들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까지 함께 참여하여, 활동 이후 더욱 친밀해질 수 있었습니다. 외에도 팀을 이루어 사진 따라 하기, 릴레이 경주 등 활기찬 진행자(선생님)분과 함께 신나는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학교 학생들과도 그룹을 이루는 Activity Day가 있었습니다. 팀명은 색으로 구분되며, 여러 미니 게임들(빠르게 계산하기, 수영장에서 동전 찾기, 젓가락으로 초콜릿 옮기기 등)이 준비되어 있어 하나씩 성공시키면 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다 같이 모여 계란 던지고 받기와 같은 경쟁성 게임도 합니다. 이 날 오후에는, 필리핀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팀별로 필리핀 전통 춤을 배워보기도 합니다. 또한 축제 부스들이 준비되어 있어 사격, 다트, 노래방, 빙고 게임 등 다양한 게임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덕분에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개인적으로 더위를 심하게 타며, 강한 햇빛에 알레르기가 있어 항상 선크림은 필수였습니다. 한국 여름 날씨와 비슷하나, (필리핀이) 여름이었을 경

	우 더 더웠을 거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겨울에 방문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안전	주변에 (큰) 병원이 있고, 마트나 물을 포함하여 Officer들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리조트 입구 쪽에도 상시 대기하시어, 길을 건너거나 트라이시클 등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될 때면 항상 도움을 주셨습니다. Public(시장)에 방문할 때도 소매치기를 조심하였으나 어떠한 피해도 없었습니다.
숙소	방마다 시설이 조금씩 다르지만, 소소하게 불편했던 점이 있긴 했습니다. 옷장이나 화장실이 너무 작다거나, 샤워기 수압이 약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만, 연수 전 각오한 것보단 괜찮았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점호 때 말씀드렸고(이불 교체 등), 주 3회씩 Cleaning 서비스가 있습니다. 별레 걱정이 가장 컸지만, 개미나 모기 외에는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들께서 놀라실 정도로 모기에 많이 물리긴 했습니다.
식사	필리핀 음식들이 보편적인 한국인 입맛에 맞지 않는 듯합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이므로 이것저것 충분히 도전해볼만 하며, 서양식과 일식 또한 쉽게 접할 수 있기에(한식도 인기가 많음) 어쩌다 특정 한식이 생각나는 것 외에는 크게 음식 걱정은 없었습니다. 숙소 내 식단도 한식 위주였기에, 한식이 간절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교통	가장 많이 이용한 교통수단은 '트라이시클'입니다. 필리핀 지방에서 접할 수 있으며, 거리에 따라 50페소~80페소까지 지불했습니다(기사가 100페소를 부른 적도 있으나, 최대한 흥정함). 최대 4인까지 탑승이 가능했으며, 주로 3명씩 탑승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라이더 뒷자리인 바깥 자리에도 탑승이 가능합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636,8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SSP(학생연수허가서)	150,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여행자보험	37,95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생활비	한화 50만 원 (100페소, 400불)	출국 전 환전, 100불 미사용
합계	1,324,750원	100불 미사용

5. 출국 전 준비사항

페소로까지 환전할 필요는 없었을 듯합니다. 달러로만 환전 후, 다 같이 환전소에 방문할 때 페소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 여름옷을 최대한 다양하게 챙기고, 실내 에어컨에 대비하여 얇은 겂옷을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한국음식(컵라면 등)이 많이 판매되고 있어 우선순위로 챙길 필요가 없으며, 개인 상비약과 썬 크림 등을 우선적으로 챙겨

야 합니다. 과제물 수행을 위해 노트북을 가져갔었는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영상 편집을 위해 태블릿PC는 사용했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이 정도로 재밌고 잊지 못할 추억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수업도, 활동도, 방과 후 바깥에서 놀던 모든 기억들이 아직까지 여운으로 남아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3주는 너무 짧다는 말도 많이 나왔습니다.

어학연수의 목적으로 필리핀에 방문했지만, 공부를 포함하여 모든 순간들이 가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매우 친절하셨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려 노력하셨으며(원할 때 미리 양식을 제출하면, 선생님들과 외출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너무 정이 들어 헤어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같이 간 동료들과도 너무나도 친해졌기에, 이젠 이 정도 인연을 만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덧붙이자면, 학교마다 담당 Buddy teacher가 계십니다. 순천향대학교 담당이셨던 Jeri 선생님 덕분에, 안전과 관련하여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며, 저희를 너무나도 잘 챙겨 주셨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깊게 친해질 수 있었고, 물가가 낮아 돈 걱정도 적었고, 일상에서 영어로 대화할 수많은 기회가 존재했으며, 마음 맞는 사람들과 바로바로 놀러 나갈 수 있는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필리핀 어학연수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지인이 있다면, 바로 추천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아까웠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하게 토익 스피킹 시험을 준비할 수 있어서, 이 또한 큰 덕이라 생각했습니다. MMC 결과물 또한 영상학도로서 하나의 큰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평생 우리 그룹에서, 그리고 학교 사람들로부터 막둥이(bunso)로 불리던 순간들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딜 가서 이런 소중한 인연들을, 그리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귀국 행 비행기에 탑승할 때부터, 이 시간을 계속해서 그리워해왔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BPSU(바탄 주립대학교) 방문	Sinagtala 스카이스윙



Yacht tour 중 수영 시간



Yacht tour 당시 요트 위



Sinagtala 내 수영장



Subic bay (Malawaan park)

	택시 기사님과 함께
	
Anne 선생님과 함께 (졸업식 날)	Joy 선생님과 함께 (졸업식 날)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신 x x	학번	2020 x x x x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Battan, Balanga city
파견대학	BPSU(BGC)	기간	3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BPSU대학의 BGC에 파견되어 공부했습니다. 한국의 대학교와는 많이 다른 외형의 대학교입니다. 고속도로 중간에 있으며, 관광지에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숙소 건물도 3~4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p> <p>이 중간에 Cafeteria가 있는데, 그 건물은 식당, 교실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수영장은 총 3개가 존재합니다. 1개는 Private Pool로 학교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깊이가 어느정도 있고, 아주 작은 미끄럼틀이 있습니다. 나머지 2개는 공용 수영장으로, 외부인도 사용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는 커다란 수영장에 큰 미끄럼틀이 있는 규모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파도 풀로 사용되며, 13:00-13:30분까지, 30분 정도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 <p>와이파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와이파이는 Gazebo라 불리는 수영장 옆, 야외 휴식공간과, Jasmine Hall이라는 도서관 겸 Activity에 사용되는 공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p> <p>운동장으로 사용하는 넓은 공간도 존재하며, 그 뒤로는 동물원 비스무리한 공간도 존재합니다.</p> <p>운동장으로 사용하는 넓은 공간과 동물원 외에는 굉장히 밀집되어있어 이동이 용이합니다. 운동장, 동물원도 가까우나, 다른 공간에 비해서는 비교적 멀니다.</p> <p>도시는 금연도시이기 때문에 지정된 지역(교내 흡연장)외에는 절대금연을 해야합니다.</p>
수업	<p>보통 일과는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50분 수업, 10분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12:00-13:00 점심시간, 17:00-23:00(평일), 24:00(일요일) 저녁 및 자유시간이었습니다. 수업은 Interchange, TOEIC Speaking, MMC, Reading, Let's Talk으로 구성되었으며, Interchange, TOEIC Speaking은 하</p>

루에 각각 2시간 씩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 TOEIC Speaking, MMC, Let's Talk 수업은 그룹으로 진행되며, 그룹은 사전 레벨테스트를 통해 구성었고, 각 수업 별로 교재를 주었습니다.

Interchange 수업은 두 선생님께 오전, 오후 각각 수업을 받았습니다. 오전에는 책 위주의, 여러분들이 아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수업은 달랐습니다. 첫 시간 때, 선생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 배우고 싶냐고 여쭙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용구(idiom)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업은 interchange에 관한 큰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며, idiom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TOEIC Speaking 수업도 하루에 두 번 있습니다. 이 수업은 'TOEIC Speaking'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최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각 문제 유형별로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며, 어떻게 해야하는지 들려주고, 이를 연습할 수 있는 시간도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TOEIC Speaking 시험에 준비하지 않으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를 준비하며, 영어 말하기나 영작에 도움이 충분이 되었으며, 회사에서 사용하는 영어 말하기 방식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MMC는 Multi Media Class의 준말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광고, 뮤직비디오 둘 중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이는 어학연수를 얼마나 가는 지에 따라, 학교에서 정해줍니다. 저희는 뮤직비디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의 음악은 사전에 정해집니다. 솔직히 이 수업이 영어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저, 뻘뻘한 수업시간 속 잠시 숨 돌릴 시간을 주는 수업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게 참여한 수업 중 하나입니다. 저희 조는 처음 계획을 너무 열심히 짰 나머지,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수업시간 외에 따로 시간을 내서 영상을 찍어야 하는 경우도 흔하며, 점호 후 영상편집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재미는 있었습니다.

Let's Talk 수업은 말 그대로 말하기를 유도하는 수업이었습니다. 발표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발표의 내용이 무겁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취미, 성격 등을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저는 외향적입니다'가 아니라, 왜 본인이 외향적인지에 대해서 말해야하는,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당연히 끝나야 하는 대화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 준 수업이었습니다.

Reading은 책을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 Reading 책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모르는 단어, 관용구, 회계용어 등 다양한 분야의 모르는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영어에 자신이 있어 어려운 수업이 없을 것이라고

	<p>생각했던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이 수업은 저에게 영어 공부를 다시 시켜준 수업입니다. 수업 전에 예습을 하지 않으면 진도가 나가지 않아 짜증이 나서, 혼자 예습하고, 복습했습니다. 예습과 복습을 통해 수업 진도를 최대한 끌어올렸고, 그만큼 얻어가는 내용도 많았습니다.</p> <p>여기서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점은, 모든 선생님이 친절하고 밝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농담도 던져주십니다. 우리가 영작을 못해 더듬거려도, 시간을 갖고 기다려 주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니다.</p> <p>모든 수업이 책을 이용한 딱딱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업을 하면서 장난도 치고, 질문도 많이 하며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일방향적 수업이 아닌, 양방향적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즐거웠고, 기다려졌습니다.</p> <p>필리핀이라서 영어가 조금 이상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도 훌륭한, 영어 악센트나 발음을 사용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았고, 그래서 하나같이 저에게 도움이 된 수업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p>
Activity	<p>매주 화요일 오후, Activity를 진행했습니다. 오후에 두 개의 수업이 끝난 후 진행된 Activity는 매 주 테마가 있었습니다. 또, 토요일에는 주변 여러 관광지들을 체험하게 해주었습니다.</p> <p>1주차 때는 'Getting to Know'라는 주제로 서로 모르는 학생들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고, 친해질 수 있는 게임들로 구성되어있었습니다. 이후, 1주차 수요일에는 BPSU본캠으로 BPSU대학생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거기서 필리핀 학생들과 다양한 대화를 했고, 필리핀의 대중교통, 음식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필리핀의 민속놀이와 요즘 유행하는 틱톡도 함께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p> <p>1주차 토요일에는 Sinagala에 갔습니다. 이곳은 산이었고, 여러 어트랙션을 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에 산이라고 하길래, 등산하는 산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관광지입니다. 절대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가야합니다. 이곳에는 줌라인, 스카이버이크, 장애물코스, 하늘그네, 동물원, 수영장 등 다양한 놀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트랙션을 타기 위한 표는 직접 구매해야하며, 수영장은 무료입니다.</p> <p>2주차는 'Group Dynamic'을 주제로, 서로의 협동심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게임들로 구성되었습니다.</p> <p>2주차 토요일에는 Subic Bay에 갔습니다. 여기서 요트투어를 진행합니다.</p>

	<p>요트투어 중간에 멈춰 바다 한 가운데 들어가서 수영도 즐길 수 있습니다.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요트투어 이후에는 Subic Bay 근처의 Harbor Point 쇼핑몰 근처를 돌며 관광할 수 있습니다. 근처에는 공원이나 다양한 먹거리가 있어, 둘러보는데 좋았습니다. 특히, Texas Joe's라는 미국식 스테이크집은 가격대가 있었지만, 정말 맛있었습니다.</p> <p>3주차, 마지막 주차에는 다른 학교와 다같이 연계하여, 그룹을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그룹에는 다양한 학교 학생들이 섞여있지만, 리더 학생을 중심으로 모든 그룹이 재미있게 활동했습니다. 다양한 코스를 지나며 그룹 게임을 할 수 있음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또, 필리핀 전통무용을 보고,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인상깊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선생님들이 준비하신 여러 부스에서 정말 즐겁게 놀았습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저는 1.27-2.17일, 3주 동안 다녀왔습니다. 날씨는 날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역시나 덥습니다. 저는 샌들을 많이 신었는데, 저녁에 돌아다니다가 벌레에게 많이 물렸습니다. 신발을 적극 추천합니다. 선크림은 당연히 필수입니다. 수업 듣는 공간 등 평소에는 실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긴바지나 가벼운 외투도 필요합니다.
안전	정말 안전합니다. 현지 경찰이 점호시간 30분 전에 센터로 들어와 수상한 사람이 없는지 감시도 합니다. 또, 정문 경비원이 ID카드가 없으면 들여보내지 않고, 내보내지도 않습니다. 또, 대부분 사람들이 친절하여 물어보면 잘 대답해줍니다. 그래도 영수증은 꼭꼭 받으셔서 3일 정도는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숙소	저는 ANAHAW1, 4인실을 사용했습니다. 내부는 넓고 쾌적했습니다. 4개의 침대, 각각의 옷장과 화장대, 세면대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두 개로 충분했습니다. 개미가 많았지만, 아무렇지 않았습니니다. 에어컨은 자기 맘대로 틀 수 있습니다, 즉, 잘 때 많이 춥습니다. 이불은 엄청 얇은 이불이라, 잘 때, 긴 팔 긴 바지는 안 입으시더라도 꼭 챙겨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식사	아침 08:00-08:50 / 점심 11:50-12:50 / 저녁 16:50-17:50에 주십니다. 하루 전 단톡방에 다음 날 식단을 보내주시고, 저녁식사 여부를 투표하여 수요를 파악해, 그만큼 식사를 주십니다. 투표를 안 하고 먹는 사람들이 있어, 부족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한식과 필리핀 음식을 고루고루 주셨습니다. 아침은 주로 빵식이나 죽, 스프 등으로 가볍게 주셨고, 저녁은 국수, 파스타, 고기 위주의 든든한 식단을 주셨습니다. 김치는 매일 주셨는데 정말 맛있었고, 만족스럽게 매 끼니를 챙겨먹었습니다.
교통	솔직히 엄청 좋진 않았습니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센터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건너면 VISTA MALL이라는 큰 쇼핑몰이 있습니다. 여길 건널 때,

marshall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건너야 합니다. 안전하긴 하나, 많이 무섭고, 사고날 가능성이 큼니다. 또, 여기는 택시가 없어 tricycle을 탑니다. 오토바이 옆에 바퀴달린 작은게 붙어있는 겁니다. 3명까지만 탈 수 있고, 가격은 기사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또, 시간이 늦으면 잘 잡을 수 없습니다. tricycle을 타지 않으면 vista mall밖에 갈 수 없어 몇 번이고 탈 수 밖에 없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2,854,06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eTA (전자여행허가)	CAD 7\$	출국 전 본인이 직접 신청
여행자보험	41,37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생활비	PHP 21,500 (한화 50만 원)	출국 전 환전
항공료	636,8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SSP(학생연수허가서)	150,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여행자보험	37,95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합계	1,324,75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숙소에 에어컨을 엄청 틀어서 춥습니다. 개인 따뜻한 담요 하나씩은 꼭 들고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노트북을 챙겨오라고 하시는데, 사실 노트북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이패드만 MMC수업 때 영상 편집 간 사용하는데, 노트북은 수강신청 등을 하지 않으신다면 필요 없습니다.

빨래는 매주 월, 수, 금에 하고 바로 그날 밤에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옷을 많이 챙겨오실 필요 없습니다.

필리핀의 팁문화는 모르겠지만, 센터 주변 도시의 팁은 미국의 팁과는 다릅니다. 여기는 팁을 자기들이 포함해서 영수증을 주기 때문에, 팁을 위한 천 원이나 달리는 챙겨오지 않으시는게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들에게 드릴 선물이 없는게 아쉬웠습니다. 물론 한국 학생들을 자주 만나시는 선생님들이지만, 정말 정이 많이 들어버렸는데, 선물 드릴게 없어서 많이 난감했습니다. 오시기 전에 꼭 3개 정도는 한국 선물을 사서 가시는 걸 강추드립니다.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서, 더 챙겨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게 한이었습니다.

약을 반드시 챙겨오십시오. 지사제나 소화제. 물이 정말 한국하고 안 맞아서 아픈 경우가 흔합니다. 절대로 한국 약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챙겨와서 나눠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텀블러는 정말 필수입니다. 밖에 정수기가 있어서, 그거 떠서 먹어야 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솔직히 별로 기대 안 했는데, 평생 잊지 못할 3주가 될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 있으면서 주말이나 평일에 진행한 활동은 물론이고, 수업까지도 늘 기다려졌고, 지금은 그리울 정도로 인상 깊었습니다. 원하는게 있으면 뭐든 말하면 다 해결해주시고, 헌신해주시는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선생님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제도는 참 좋았습니다. 좋아하는 선생님과 함께하는 식사자리는 늘 따뜻했고, 재밌었습니다. 필리핀이라는 이미지에 가려진, 선생님들의 수준에 놀랐고, 선생님들의 친절에 감동했고, 선생님들의 진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전재우 교수님도, 이지민 교장선생님도 너무 따뜻했습니다. 교수님과 교장선생님 모두 안 보이는 곳에서 저희들 이름 외우고 계시고, 신경 안쓰실 것 같은 부분까지 모두 신경써 주셨습니다. 먼저 좋았던 사실들에 대해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1. 바비큐파티

원하실 때마다, 사전에 buddy-teacher에게 말씀하시고, 전재우 교수님이 허락하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비큐파티를 위한 고기나 술, 야채 등은 사야하지만, 식당측에서 지원되는 밥, 김치와 갖가지 주방용품, 학교측에서 빌려주는 토치나 스피커, 노래방기계는 최고의 바비큐파티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저희는 3주 동안 총 2회 진행했습니다. 교수님과 이지민 교장선생님을 초청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바비큐파티를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2.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요구사항

저희는 2023 카타르 아시안컵 기간에 단기어학연수를 갔습니다. 쿠팡플레이가 있지만, 필리핀에 있으면 볼 수 없게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buddy-teacher에게 말씀드렸더니, 전재우교수님께 바로 말씀해주셔서, 4강전을 Cafeteria에서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빔 프로젝터로 함께 보며 한국을 응원한 기억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불이 너무 얇아 두꺼운 것으로 바꿔달라거나, 세탁바구니가 너무 작다 등 정말 사소한 부분까지도 신경써 주십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전에 유심은 학교측에서 제공한다고 공지 받았었습니다. 필리핀에 도착하고 다음 날 유심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3일, 5G인 유심이고, 더 사용하려면 추가구매를 해야합니다. 추가구매를 하려면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사용해 구매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는 수수료가 붙어 비쌉니다. 다른 방법은 센터 앞에 있는 vista mall 1층에서 globe앱의 credit를 충전해서 다시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나, vista mall에 가야하는 수고를 해야한다는 점이 별로였습니다. 또, 필리핀 유심으로 바꾸고 한국유심으로 바꾼 저로서는, 여행 전에 e-sim으로 필리핀 로밍을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했습니다.

이 외에는 정말 재밌던 3주 였습니다. 3주가 아니라 6주, 아니 8주를 해도 기꺼이 참여할 의사가 있고, 적극적으로 추천할 만큼 가치있는 3주였습니다. 특히, 수업에서 열심히

하여 졸업식날, 성적표를 받는 뿌듯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영어를 얼마나 잘하고, 못하는가는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할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고 캐나다고 상관 없이, 저는 이곳 필리핀에서 영어를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서, 영어의 자신감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너무 즐거웠고,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3주를 보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1주차 Sinagtala</p>	<p>1주차 Sinagtala 수영장</p>
	
<p>2주차 Subic Bay 요트투어</p>	<p>2주차 선생님들과 저녁식사</p>
	
<p>3주차 졸업식</p>	<p>3주차 졸업식 후</p>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서 x x	학번	2021 x x x x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발랑가(Balanga)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BPSU)	기간	2024. 1 .28(일) ~ 02. 17(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센터는 필리핀 바탄주에 있는 발랑가에 위치하여 있다. 센터 바로 앞 5분 정도 거리에 Vista mall이라는 쇼핑센터가 있어서 음식점, 카페, 마트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여권이 있으면 환전도 가능하다. SM 몰이 있는 중심가까지 필리핀의 교통수단인 트라이시클을 타면 약 15분 정도 걸려서 도착할 수 있다.</p> <p>센터 내에는 여러 수영장이 있는데 퍼블릭 수영장은 시간상 주말에만 이용이 가능하고 카페테리아 근처에 있는 프라이빗 풀은 매일 사용이 가능하다. 이곳에서 바비큐 파티를 할 수도 있고 테이블이 있어서 그곳에 모여 과일이나 음식을 먹기도 했다. 센터 안과 밖에는 선생님들과 순찰하시는 경찰분들이 계셔서 안전은 걱정하지 않고 잘 지냈다.</p>
수업	<p>첫날 센터에 도착하자마자 분반을 위해 레벨 테스트를 진행했다. 레벨 테스트 결과에 따라 학생 자신에게 맞는 교재가 주어진다. 3시간은 1:1 수업, 4시간은 그룹 수업으로 하루에 총 7시간 수업이 이루어진다.</p> <p>개인 수업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는 방식인 EFL READING 1시간, 대학 현대응용영어에서 사용하는 책과 비슷한 교재를 가지고 대화, 문법, 글쓰기 등을 진행하는 INTERCHANGE 2시간으로 진행된다. 1:1 수업의 선생님은 모두 다르신데 수업 전 대화 테스트를 통해 센터에서 자신과 잘 맞는 선생님을 배정해 주신다. 그룹 수업은 TOEIC SPEAKING 2시간, LET'S TALK 1시간, MULTIMEDIA 1시간으로 진행된다.</p> <p>토익 스피킹 수업은 실제 시험을 준비하는 것처럼 진행되며 처음 1시간은 문제 번호별 전략과 대답 방식 등을 배우고 남은 1시간은 1번부터 11번 문제를 1명씩 돌아가며 연습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대답을 잘 하지 못해도 연습이 끝나면 개인별로 항상 피드백을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LET'S TALK 수업에서는 일상 회화를 위주로 공부하고 MULTIMEDIA 시간에는 조별로 정해진 노래에 맞는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수업이다. 마지막에 MMC 페스티벌을 통해 영상 순위를 정하는 시간도 있다.</p>

Activity	<p><평일 액티비티></p> <p>Getting to know :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프로그램이다. 서로의 이름을 빠르게 맞추기, 돌아가며 서로의 얼굴 그려주기 등 간단한 게임을 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다.</p> <p>Group dynamics : 사회자의 말과 반대로 행동하기, 사진 속 자세를 그룹별로 따라 하기, 사회자가 부르는 숫자대로 모이기 등 여러 게임을 하며 서로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p> <p>BGC Season Festival : BGC 센터에 모인 모든 대학교 학생들을 랜덤으로 섞어서 체육대회와 비슷한 게임을 진행한다. 총 11개의 미션을 수행하며 서로 가까워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오후에는 근처 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공연 관람과 필리핀 전통춤을 배우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선생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부스를 체험하는 시간도 있다.</p>
	<p><주말 액티비티></p> <p>Sinagtala : 첫 번째 주 주말 액티비티로 리조트에 가서 줌라인, 스카이 바이크, 하늘 그네 등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고 풍경이 멋진 수영장도 이용 가능하다.</p> <p>BPSU Intercultural : BPSU에 가서 재학 중인 학생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게임을 진행한다.</p> <p>Yacht Tour : 두 번째 주 주말 액티비티로 수빅에 가서 요트투어를 진행하였다. 바다 수영을 원한다면 구명조끼를 빌려주기 때문에 수영복을 가지고 가는 것도 좋다. 수빅베이 근처에서 기념품 구입, 카지노, 네일아트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 폐소를 많이 준비해 가는 것도 좋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필리핀의 겨울이라서 그런지 비는 하루도 오지 않았다. 보통 낮에는 33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항상 선크림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추천한다. 센터 안은 항상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주셔서 걸옷을 챙겨 다니며 지냈다. 더운 지역이라서 모기가 많이 있다. 모기기피제랑 버물리 등을 꼭 챙겨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안전	센터 안과 밖에는 선생님들과 경찰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안전은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목줄을 하지 않은 채로 돌아다니는 강아지(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개를 무서워한다면 특히 저녁에는 여러 명과 같이 다니는 것을 추천한다.
숙소	숙소는 센터 안에 리조트를 사용했다. 3인 1실로 이루어져 있고 방 안은 침대, 탁상, 옷장, 화장실 1개, 화장대 등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가끔 벌레나 도마뱀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버디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바로 달려오셔서 해결해 주신다. 숙소 화장실 샤워기의 수압이 약해서 한국에서 가져

	<p>간 필터 샤워기를 이용하였다. 물은 걱정과 달리 너무 깨끗했다. 청소와 빨래는 이틀에 한 번씩 해주시는데 당일에 바로 가져다주시기에 수건과 옷을 많이 챙겨올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숙소 안 에어컨도 잘 작동하여서 더위 걱정 없이 잘 지냈다.</p> <p>화장지는 처음에 주시고 다 쓰면 우리가 구매해서 사용해야 했지만 숙소 바로 앞 마트에서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었다.</p>
식사	<p>아침, 점심, 저녁 모두 주로 센터 안 카페테리아를 이용하였고 가끔 수업 후 외부 일정이 있는 경우 외부 식당을 이용하였다. 식단은 걱정과 달리 한국인의 입맛에 맞춘 메뉴로 구성되어 있어서 항상 맛있게 먹었다.</p> <p>센터 안에 있는 물은 깨끗했지만 외부 식당에서 주는 물을 마시고 물갈이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밖에서 물을 먹을 때는 병에 담긴 물을 사 먹는 것을 추천한다.</p> <p>과일이 저렴해서 많이 사 먹는 경우가 많은데 배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저녁시간 과일 섭취는 조심하는 것이 좋다.</p>
교통	<p>센터 입구로 나가면 경찰분들이 어디로 갈지 물어보시고 트라이시클을 잡아주십니다. 위치를 알려주시면 트라이시클 기사님과 가격도 측정해서 알려주셔서 편하게 다닐 수 있었다. 3명 기준 트라이시클을 한번 탈 때 60~90페소를 지불하였다. 저녁에는 트라이시클을 잡기 힘들기 때문에 너무 늦은 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p> <p>버스도 있었는데 모든 버스가 20페소만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었다. 버스에 창문이 없지만 속도가 빨라서 시원한 바람이 불었고 트라이시클보다 넓어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했다. 다만 버스 정류장이 따로 없어서 타기 전에 장소를 말하고 타면 근처에서 내려주신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2,854,06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eTA (전자여행허가)	CAD 7\$	출국 전 본인이 직접 신청
여행자보험	41,37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환전	240달러(319,800원)	식비, 생활, 기념품 등 구매
병원비	80달러(106,600원)	병원, 약값 지불
합계	426,400원	사전 납부 제외 개인 사용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상비약 : 소화제, 감기약, 지사제, 모기기피제, 타이레놀, 멀미약 등 여러 가지 약을 챙겨

갔다. 특히, 연수 기간이 길다면 지사제나 감기약은 많이 챙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원인 모를 배탈과 설사에 오랜 기간 고통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심한 경우 구토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평소에 건강하다고 해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챙겨가는 것을 추천한다. 물론 센터 선생님들이 잘 챙겨 주시기는 하지만 본인에게 잘 맞는 약이 있다면 챙겨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선크림 : 아무리 필리핀의 겨울이라고 해도 평상시 온도가 30도가 넘기 때문에 선크림을 바르지 않으면 살이 많이 탄다.

한국 음식(라면 등) : 한인 마트나 식당이 있긴 하지만 한국에 비해 가격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 챙겨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1, 그룹 선생님들께 드릴 선물과 작은 편지지 : 3주 동안 거의 매일 보며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정이 많이 들어서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었지만 한국에서 가져가지 않아서 아쉬운 마음이 컸다.

비자 카드 : 생각보다 대형 마트나 식당에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비상용으로라도 비자나 ATM 이용이 가능한 카드를 챙겨가는 것을 추천한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자신감 있게 출발했지만 막상 하루 종일 진행되는 모든 수업에서 영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웠다. 선생님들마다 말의 빠르기와 발음이 다르셔서 더욱더 영어라는 언어가 어렵게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영어로 말하는 것이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선생님들과 더욱 깊은 대화를 하고 싶어서 단어를 찾아보고 미리 연습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제대로 된 대답도 못하던 토익 스피킹 수업에서도 점차 자신 있게 대답하기 시작했고 나의 변화를 가장 먼저 발견하신 건 1:1 선생님이셨다. 선생님께서 2주 정도 지났을 때 나의 영어 발음과 말하기 능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 말을 들으니 이곳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한편으론 필리핀의 생활이 너무 좋았다. 어느 곳에 가든 모든 필리핀 사람들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항상 배려가 몸에 배어있으셨다.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느낌을 많이 받았다.

마지막으로 정말 좋은 점은 학과와 나이, 성별 모두 다르지만 같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순천향대학교 사람들과도 좋은 교류의 장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같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즐거운 순간들을 함께 해서 서로에게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

평소 영어가 두려워서 밀어내기만 했거나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싶은 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매일 타던 트라이시클</p>	<p>BGC Season Festival 그룹모임</p>
	
<p>매일 이용 가능한 프라이빗 풀</p>	<p>Sinagtala에서 즐긴 스윙</p>
 	 
<p>센터 전경 + 매일 보이는 밤하늘의 별</p>	<p>요트투어</p>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윤 x x	학번	2015 x x x x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Balanga, Bataan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24.01.27 ~ 2024.02.17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BPSU에 직접 갈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았고, 대부분의 생활은 Best Global Center에서 하게 됩니다. 전재우 교수님, 이지민 이사장님, buddy teacher와 다른 모든 선생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돌봐주십니다. 다른 학우들은 cultural exchange 시간에 알게 되었던 현지인 친구들과 따로 식사도 하였지만, 저는 그런 기회는 얻지 못했습니다.
수업	<p>전반적인 수업의 콘텐츠나 수업 시간은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선생님 들께서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항상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오 십니다. 초반에는 친해지기 위해 게임이나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 는 위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크게 그룹 수업과 1:1 수업으로 나뉘는데, 그룹수업이나 1:1 수업 둘 다 처음엔 서로 어색하기 때문에 이렇게 친해지 는 시간을 가지는 방식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p> <p>1:1 수업은 책을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 업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말하는 것 에 있어 자신감을 얻고 싶다고 수업 초반에 말씀드렸고, 그러한 이유로 책 에 나오는 문법이나 reading 보다는 일상적인 대화나, 토론 위주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p> <p>그룹 수업은 토익스피킹, Let`s talk, 멀티미디어 수업을 듣게 됩니다. 토 익스피킹 수업의 경우 마지막 주에 레벨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엄격하게 진행되며, 선생님 또한 열정적으로 알려주십니다. 3주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수업에 참여한다면 실력 향상을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섬세 하게 수업이 진행됩니다. 나머지 Let`s talk와 멀티미디어 수업은 같은 조 원들끼리 얘기하고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외로울 수 있는 타지 생활 에 활력소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수업입니다.</p>
Activity	<p>평일에는 Balanga city 및 숙소에서 activity가 진행되었고, 토요일에는 Sinagtala, 요트투어 총 2번 외부 activity를 다녀왔습니다.</p> <p>평일에 하는 activity는 크게 숙소 외부에서 하는 것과 내부에서 하는 것 으로 나뉩니다. 외부에서 하는 activity는 우선 첫날 Balanga city tour를 함으로써 주요 명소 위치와 쇼핑물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 등 Balanga city</p>

	<p>전반에 걸쳐 기본적인 안내를 받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주에 BPSU Intercultural을 하게 되는데, 현지 학생들과 대화하고 현지의 문화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p> <p>숙소 내에서 하게 되는 activity는 첫째 주에 getting to know로 아직 어색할 수 있는 같은 학교 학생들끼리 서로의 얼굴을 그리거나, 게임을 함으로써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2번째 주에는 group dynamic을 통해 선생님들과 같이 대화하고 게임을 함으로써 지친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풀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주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다른 학교 학생들과 같이 팀을 이루어 숙소 안을 돌아다니며 미니게임을 수행하는 sports day와 선생님들이 만들어놓은 부스에서 장난감 총쏘기, 다트, 노래방, 전통 사탕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season festival이 진행되었습니다.</p> <p>매주 토요일마다 외부로 activity를 나가게 됩니다. 첫째 주 토요일에는 Sinagtala라고하는,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곳을 찾자면 자연휴양림 같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짚라인, 공중 그네, 스카이워크 등 다양한 익스트림 기구들이 있고 인피니티 풀 또한 마련되어 있어 학생들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예쁜 사진 또한 많이 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익스트림 기구들은 몸무게 제한이 90kg이라서 덩치가 많이 큰 학생들은 탑승이 제한됩니다. 또한, 수영복을 갈아입고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낙후된 감이 있어, 물기만 닦고 숙소에서 샤워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사료됩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의 경우 외부 음식점에서 Romi라고 하는 필리핀식 라면을 먹었는데, 입맛에 맞지 않아 하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Sinagtala 내부 식당에서 Sisig라고 하는 필리핀식 볶음 요리를 판매하는데, 동남아 음식에 거부감이 있거나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내부 식당을 방문하여 Sisig를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p> <p>둘째 주 토요일에는 Subic Bay에 요트투어를 체험하였습니다. 시간은 2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중간에 잠깐 정차하여 바다 한가운데에서 안전하게 수영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집니다. 요트 투어가 끝난 뒤에는 자유시간이 주어지며 학생들은 자유롭게 Subic bay를 다니며 쇼핑을 하거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점이나 쇼핑물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기대를 많이 하고 가게 된다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쇼핑물을 가는 것을 추천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바닷가의 일몰이 엄청 아름다우니 바닷가에서 산책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추천합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날씨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단 한 번도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렸던 적이 없습니다. 한낮에는 햇볕이 정말 뜨겁지만, 수업이 끝날 때쯤엔 열기도 어느 정도 가시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지만 동남아 특성상, 언제 비가 올지 모르므로 조그만 우산을 하나 챙겨다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라면 적응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 일교차가 매우 큰 편이라 밤이나 아침에 외출용 얇은 자켓을 하나 가지고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전	11시에 점호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보통 10시 전이나 늦어도 10시 반까지는 숙소에 들어오게 되는데, 사전에 생겼던 인식과 달리 Balanga city는 굉장히 안전한 도시라고 느꼈습니다. 사람들도 친절하고 한국인을 좋아해서 위험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횡단보도가 거의 없고, 신호등이 없어서 길을 건널 때 주변을 잘 살펴야 하며 어느 정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숙소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시설이 오래돼서 개미가 숙소에 조금 많지만, 그 외에는 숙소에서 불편함을 느낀 점은 없었습니다. 숙소에는 수영장이 3개가 있으며 거주 중인 학생은 운영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청소하여 수질도 매우 좋습니다. 메인 수영장 뒤편에 아침에 해가 뜨는 방향으로 일출을 볼 수 있게 벤치가 놓아져 있으니, 방문하는 학생들이 한 번이라도 일출을 직접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한식과 필리핀 음식이 번갈아 가며 급식 됩니다. 어느 정도 친근한 맛의 필리핀 음식만 식단에 포함되어 있어, 급식이 입에 맞지 않는 학생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필리핀 음식에는 신맛이 많이 나는 음식이 많아서 학생들이 외부에서 음식을 먹게 될 경우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꼭 음식을 주문하기 전에 음식이 신 음식인지 물어보고 주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동남아 음식이 익숙한 학생이라면 상관없습니다.
교통	학생들은 이동할 때 대부분 트라이시클이라는 오토바이 택시 같은 이동 수단을 이용하게 됩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학생의 재량에 따라 더 깎을 수도, 많이 낼 수도있으니, 상한선이 어느 정도인지 선생님들에게 미리 물어볼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어제도 00 가격에 왔습니다'라고 하며 깎았는데, 이 방법이 엄청나게 잘 통했습니다. 10시 이후에는 트라이시클이 잘 다니지 않으므로, 10시 이전에 복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항상 위치를 바꿀 때는 buddy teacher에게 알리는 것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하기 좋습니다. 상기된 것처럼, 큰 도로에도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라 길을 건널 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636,8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SSP	150,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여행자보험	37,95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헬스장	100,000원	Vista Mall
식비	500,000원	식당, 커피 등

선물	100,000원	선물용
합계	1,524,75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무엇보다도 아플 때를 대비하여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주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길지만 막상 필리핀에서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짧게 아프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길게 아프게 된다면 지나간 시간이 아쉽게 기억될 것입니다.

필리핀의 물은 석회질이 많아서 숙소에서 제공하는 정수기 물이나 편의점에서 파는 물을 제외하고는 먹지 않을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조금 민감한 편이라면 길거리 음식은 물론 쇼핑몰에서 파는 것이라도 식당이 아닌 곳에서 파는 음식은 먹지 않을 것을 추천합니다. 필리핀은 전반적으로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이 많아 예상치 못하게 배탈이 나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필리핀에 오기 전에 지사제나 진통제, 해열제 등을 여유 있게 챙겨오는 것이 좋습니다.

환전은 한국에서 하면 이중으로 환전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달러만 준비하고, 첫날 시티투어에서 환전할 기회가 주어지기에 그때 페소로 환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필리핀은 11자 전기 플러그를 사용하기 때문에 플러그 변환기와 멀티탭을 챙겨오는 것이 좋습니다. 드라이기나 핸드폰, 노트북을 충전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혹시 아프게 되면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비자, 마스터 카드를 가져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프랜차이즈나 대형 백화점을 제외하고는 카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쓸 일이 자주 있진 않지만, 프랜차이즈도 가끔 카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ATM기에서 수수료 250페소(한화 6,000원)로 출금할 수 있어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ATM기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저는 이번 필리핀 단기 어학연수를 처음 지원하였을 때, 단지 어학 능력 성장이라는 한 가지 목표만 설정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제 성격이 소심하여, 남들에게 쉽게 먼저 다가가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도 있었고 평소에 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필리핀에서의 3주를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채기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첫 번째 목표였던 어학 능력 향상은 당연히 성공적으로 이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깨어있는 시간을 대부분 영어를 사용하며 살다 보니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어학연수에 왔던 학생 모두 영어에 자신감이 생겨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나면 선생님들과 같이 나가서 저녁 식사를 함께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저의 영어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재우 교수님, 이지민 이사장님, BGC의 모든 선생님은 모두 친절하시고 저희를 항상 알게 모르게 챙겨 주십니다. 물론 3주의 과정 중 힘든 날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선생님들 모두 저희를 1순위로 챙겨주십니다.

또한, 필리핀 현지인들의 정과 에너지는 너무 밝아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참 많은

점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행복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보며 제 삶을 한 번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숙소의 야자나무</p>	<p>Sinagtala 인피니티 풀</p>
	
<p>요트 투어 1</p>	<p>요트투어 2</p>



바비큐 파티



숙소에서 보는 일출



숙소에서 가까운 피자집 S&R



Jerry's grill, Bataan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백 x x	학번	2021 x x x x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발랑가
파견대학	바탄반도 주립대학	기간	01. 28~02. 17. 2024 (3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Clark 공항으로부터 한 시간 정도 떨어진 발랑가 시티에 위치에 있으며 대학교 기숙사가 아니라 La Vista라는 숙소에서 생활했습니다. 중앙의 큰 카페테리아를 중심으로 좌우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 식사와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수업 교실은 칸막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녁에는 따로 공부하는 사람을 위해 옆 건물 자스민 홀에 책상과 의자를 마련해주셨습니다. 건물마다 에어컨을 잘 틀어주셔서 추위에 약한 사람은 따로 걸옷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p> <p>La Vista에는 Private 수영장(22시 30분까지 이용 가능)과 Public 수영장(17시까지 이용 가능, 외부인도 사용 가능)이 있고 인근에 Vista Mall과 맥도날드가 있는데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교통수단인 트라이시클을 타고 5분 정도 가면 Walter Mall과 Reggae Moon 술집이 있습니다.</p>				
수업	<p>① 시험 첫 주차 월요일에는 오전에 TOEIC Speaking 시험과 오후에 Level Test 시험을 봅니다. 시험 결과에 따라 그룹을 나누고 개인별로 선생님을 배정합니다. 마지막 주차 수요일에는 TOEIC Speaking 최종 시험을 보는데 정규 수업 시간표에 따라 토익스피킹 수업 시간에 시험을 치릅니다.</p> <p>② 정규 수업 시간 7교시 (9:00~17:00, 50분 수업과 10분 쉬는 시간) Level을 배정받은 후, 수업을 들어보고 자신과 맞지 않으면 3일 이내에 수업 레벨이나 선생님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개인별 실력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성격도 고려해서 최대한 맞는 선생님이로 배정해드립니다. 그룹별로 수업 시간표가 다르며 수업 방식도 선생님마다 다릅니다. 수업마다 교재가 있으나 진도는 나간다고보다는 서로 대화를 하고 문화를 교류하는 방식의 수업이 많았습니다. 만약 수업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맞춰드립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colspan="2">1:1 수업 (3시간 수업)</th> </tr> <tr> <td>Interchange book (2시간 수업)</td> <td>Unit을 2개로 나눠서 각각 다른 선생님과 수업합니다. 교재로 진도를 나가거나 수업 주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td> </tr> </table>	1:1 수업 (3시간 수업)		Interchange book (2시간 수업)	Unit을 2개로 나눠서 각각 다른 선생님과 수업합니다. 교재로 진도를 나가거나 수업 주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 수업 (3시간 수업)					
Interchange book (2시간 수업)	Unit을 2개로 나눠서 각각 다른 선생님과 수업합니다. 교재로 진도를 나가거나 수업 주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Reading book (1시간 수업)	20분 대화나 게임을 하고 난 후 30분 정도는 교재 진도를 나갔습니다.	
	그룹수업 (4시간 수업)		
	TOEIC Speaking (2시간 수업)	1번 문제부터 11번 문제까지 문제마다 말하는 방식과 요령을 설명하고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Let's talk (1시간 수업)	함께 이야기하거나 간단한 게임을 통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MMC 수업 (1시간 수업)	뮤직비디오 영상 촬영하고 편집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따로 시간을 가져서 완성하기 때문에 유일한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날에 그룹별로 완성한 작품들을 함께 감상합니다.		
Activity	화요일 Activity의 경우 15시부터 17시까지 진행하고, BPSU 교류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했으며, 토요일 Activity와 3주차 목요일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진행합니다.		
	1주차	화요일 Getting To Know	SCH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게임을 통해 이름, 취향 등을 외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수요일 BPSU 교류	현지 필리핀 대학생과 교류 및 활동을 합니다.
		토요일 Sinagtala	집라인, 스윙, 스카이바이크 등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으며 Activity는 개인별로 티켓을 구매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망이 좋은 수영장이 있어서 사진 찍기에 좋습니다.
	2주차	화요일 Group Dynamics	SCH 학생들, 선생님들과 게임을 하는 시간입니다.
		토요일 Subic Yacht tour	오전에 Subic에서 요트 투어를 하며 바다에서 수영을 원하시는 분들은 수영복과 수건 등을 챙기시면 좋습니다. 이후에는 자유시간이 있습니다.
	3주차	목요일 Season's Festival	오전에는 타 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활동하는데 그룹별로 릴레이 게임을 진행합니다. 오후에는 필리핀 전통춤 배우고 선생님들이 준비하신 다양한 부스를 체험하는 활동을 합니다.
		금요일 Graduate	MMC 작품을 함께 감상하고 수료증과 성적표 등을 배부합니다. 필리핀 생활을 마무리하고 선생님들과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 일요일은 자유시간으로 Public Market이나 가고 싶었던 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필리핀 겨울철에는 낮 평균 온도 32도, 저녁은 23도 정도로 기온 차가 있습니다. 이번 파견 기간에 비가 온 적은 없었으나 햇빛이 따가워서 양우산을 하나 가져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선크림은 필수이며 토요일 Activity나 일요일에 장시간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도 좋습니다.</p>
안전	<p>숙소 입구에는 경비원 한 분 계시는데 게이트 카드를 통해 학생들의 출입 여부를 기록하십니다. 골목길 끝에는 시티 경찰 한 분이 계시며 도로 건너편에 있는 비스타 몰에 갈 때 도로를 횡단할 수 있게 봐주시거나 트라이시클 또는 버스를 이용할 때 잡아주셔서 편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p> <p>Mall에는 Vista, Walter, SM 모두 경비원분들이 입구나 가게마다 계셔서 생각보다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같이 사진 찍자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주는 분도 계셨습니다.</p> <p>통금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23시, 금요일과 토요일은 24시까지로 점호 전까지 숙소에 있어야 합니다.</p>
숙소	<p>기본 3인 1실로 저렴한 동남아 숙소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화장실은 좀 열악한 편이나 수압도 괜찮았고 따뜻한 물은 잘 나옵니다. 다른 방은 큰 바퀴벌레도 나왔다고 하는데 다행히 머물렀던 방은 개미만 발견했습니다. 모기나 날벌레가 많이 들어오긴 해서 모기 퇴치제를 가져와서 항상 켜두는 것을 추천합니다.</p> <p>신발을 신고 내부에서 생활해야 하며 겨울철이라고 해도 덥고 습해서 에어컨을 틀고 주로 생활합니다. 이불의 경우 천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불이 지급되는데 조금 더 두꺼운 이불을 원하면 따로 요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얇은 편이라 추위에 약하시면 잠옷으로 긴 팔 긴바지를 챙겨오는 것이 좋습니다.</p> <p>세탁과 방 청소는 일주일에 3번으로 저희 숙소는 월, 수, 금에 했습니다. 세탁은 세탁물과 함께 기록표에 어떤 세탁물이 있는지 작성해서 내놓으면 저녁에 건조기까지 돌려서 방 앞에 두십니다. 청소의 경우 학생들 물건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해주시며 쓰레기 비우고 바닥과 화장실 청소를 하십니다.</p>
식사	<p>기숙사식당(●) 외부식당 (●) 기타(배달, Food Panda 앱 이용)</p> <p>La Vista 숙소의 식단은 한식 위주로 아침은 샌드위치나 간단한 한식이 나오고, 점심과 저녁은 한식에 필리핀 음식이 한 종류 정도 나오는 편입니다. 메뉴는 매일 Buddy teacher가 사전에 공지해주시고 저녁 식사 시 식사 여부 투표를 진행하니 참여해야 합니다.</p> <p>필리핀 수질이 한국과 달라서 식당에서 물이나 얼음을 제공한다면 먹지 않은 편이 좋습니다. 석회질 물이 한국인과 잘 맞지 않아서 가볍게 생각하고 마셨다가 고생할 수 있습니다.</p>

교통	<p>트라이시클은 60페소(최소 기본요금으로 인원수는 관계없음)로 목적지에서 멀수록 최대 100페소까지 추가 요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매번 탈 때마다 가격흥정이 필수인데 멀리 있는 편인 SM 몰에 갈 때도 기사님과 협상하면 추가 요금 없이 60페소에 갈 수도 있습니다. 잔돈이 없다고 하거나 많은 돈을 요구하는 기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트라이시클 타기 전에 꼭 요금을 확인하고 타는 것이 좋습니다.</p> <p>인원이 많은 경우 버스도 이용 가능한데 15페소 정도 합니다. 버스 운행 시간과 노선은 잘 모르나 대부분 SM 버스터미널에 가며 저렴하고 시간도 트라이시클과 크게 차이가 없어서 추천합니다. 다만 창문이 없어서 나뭇가지에 얼굴 부딪힐 수 있으니 이점은 조심해야 합니다.</p>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636,8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SSP(학생연수허가서)	150,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여행자보험	37,95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3주간의 생활비	200달러	식비, 간식비, 교통비 전부 포함
기념품	50달러	출국 전, 공항에서 구매한 값 포함
합계	250달러	

5. 출국 전 준비사항

<p>1. 환전 및 물품 구매</p> <p>한국에서 필요한 돈 전액 달러로 바꿔서 City Tour 할 때 페소로 바꿀 것을 추천합니다. 미리 한국에서 100달러 정도 페소로 바꿔서 갔는데 손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환전 시간 주기 전까지 따로 페소 쓸 시간도 없습니다. 기타 필요한 물건도 경우 City Tour 시간에 구매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슬리퍼를 Public Market에서 99페소(한화 약 2,300원)에 한 켤레 사서 3주간 잘 쓰고 버리고 왔습니다.</p> <p>2. 로밍</p> <p>필리핀 도착한 다음 날, 시험 보는 중간중간에 유심을 바꿔주고 3일간 20기가 쓸 수 있도록 해주 시는데 그 이후부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필요한 만큼 데이터를 더 사야 합니다. Crab 앱을 이용해서 구매할 수 있는데 Vista Mall에서 돈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전 단위가 애매하고 나중에 충전금액이 남아도 환전받지 못하기 때문에 트레블 카드 있다면 카드로 구매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p>
--

3. 건강 (※ 상비약 꼭 갖춰올 것!)

다들 한 번씩 아프거나 돌아와서 아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파견 인원 15명 중에서 13명이 아팠는데 보통 석회질 물로 인한 물갈이나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바이러스 문제로 아팠습니다. 미리 지사제와 함께 소화제, 진통제, 소독약 등 상비약은 한국에서 꼭 챙겨오시길 바랍니다.

멀미가 심한 경우 멀미약도 필수입니다. 포장도로여도 구멍이나 자갈이 많아 차가 많이 흔들립니다. 요트 투어도 중간에 멈춰있는 시간도 있어서 뱃멀미가 심한 경우 뱃멀미약도 필요하신 분은 챙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파견 기간에 비가 오지 않아서 그런지 트라이시클 탔을 때 먼지가 엄청 심합니다.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은 이용할 때 마스크 쓰고 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멀티탭과 변환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멀티탭이 하나 있으나 선이 짧습니다. 연결해서 사용하려고 한다면 개별로 최소 1개씩은 가져오셔야 합니다. 전자기기가 많으시거나 드라이기, 모기 기피제 등 여러 제품을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 콘센트 수가 많지 않은 것을 고려해 변환기도 챙겨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번외) 선물이나 편지지

선생님들과도 여러 이야기를 하는 만큼 유대관계가 깊어지고 BPSU 친구들과도 활동하고 인스타로 소통하거나 따로 만나면서 친분을 다지는 시간이 많습니다. Buddy Teacher와 담당 선생님 6분 외에도 다른 선생님들과도 친해지는 기회가 많으며 생각보다 정도 많이 듣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작은 선물이나 편지지를 미리 넉넉하게 구매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필리핀에서는 한국 다이소보다 질이나 디자인 면에서 괜찮은 편지지가 없어서 한국에서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이를 극복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신청했지만 준비하면서도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부족한 영어 실력에 해외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소통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스스로가 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저에게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선사했고 영어에 대한 제 생각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영어를 잘하지 못해서 선생님들과 대화하는 도중 이해를 하지 못해도 더 쉽게 설명해주시고 단어 나 설명하다가 막혀서 해매고 있어도 제가 말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등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배려해주시고 이해해주셔서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었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부딪히고 말하려고 노력하게 되면서 영어에 대한 거부감은 줄어들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룹수업도 좋았지만 1:1 수업에서 문화와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배우는 수업이 좋았습니다. TOEIC Speaking 수업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시험 보는 방법부터 팁을 잘 설명해주시고 개별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지도해주셔서 시험 응시할 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의 타과 선후배, 동기들과 같이 수업을 듣고 이야기하면서 친해지고 센터에서 같이 생활하는 타 대학 학생들과도 이야기하고 놀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BPSU 학생들과도 교류하면서 타갈로그어나 최근 필리핀에서 유행하는 문화도 배우고 일상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주변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단기 어학연수로 영어 실력을 올리기에는 3주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타국에서 새로운 문화를 직접 배우고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La Vista의 카페테리아(수업 교실)



La Vista의 Private Pool (Gazebo)



트라이시클



Sinagtala



Subic Yacht tour



Season's Festival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조xx	학번	2021xxxx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Balanga
파견대학	BPSU	기간	24.01.28 ~ 24.02.17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Bataan Peninsula State University
수업	<p>수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7시까지 7시간 동안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중, 3시간은 1:1 수업, 4시간은 그룹수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업이 많아 지루할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수업 이외의 이야기도 많이 하고 궁금한 점도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토익스피킹 시간에는 테스트를 위한 팁,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개별적으로 봐주셔서 시험을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영어로 하면서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실력도 향상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p> <p>09:00 ~ 09:50 : Let's Talk (Teacher: Ruffa) 10:00 ~ 10:50 : TOEIC Speaking (Teacher: Tanya) 11:00 ~ 11:50 : 1:1 Interchange (Teacher: Janna) 13:00 ~ 13:50 : 1:1 Reading (Teacher: Eyna) 14:00 ~ 14:50 : 1:1 Interchange (Teacher: Mae) 15:00 ~ 15:50 : TOEIC Speaking (Teacher: Tanya) 16:00 ~ 16:50 : Multimedia Class (Teacher: Flora)</p>
Activ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tting to Know : 얼굴 그림을 그리고 이름을 맞추며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BPSU : 오전동안 학교에 가 현지 대학생과 친해지고 다양한 게임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Sinagtala : 토요일 액티비티로 다녀왔습니다. 이곳에서 줌라인, 자이언

	<p>트 스윙 등의 액티비티를 즐기고 인피니트풀에서 수영하였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oup Dynamic : 팀별 게임을 하며 2시간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Subic Bay Yacht Tour : 둘째주 토요일에 간 수빅 베이에서 2시간동안 요트를 타고 이후 7시까지 자유시간을 가져 쇼핑을 즐겼습니다. - BGC Season Festival : 센터에 있는 모든 대학교 사람들과 랜덤으로 조를 짜 오전에는 여러 부스에서 게임을 즐겼습니다. 이후 발랑가 시티의 고등학교 댄스팀의 춤 공연을 보고 선생님들이 준비한 실내 액티비티를 즐겼습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저희가 간 기간 동안은 쪽 건기라 날 대부분이 맑았습니다. 낮에는 30도가 조금 넘었고 저녁에는 24도 정도로 매우 선선한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햇빛이 강해 선크림이 필수였습니다.
안전	가기 전에는 매우 걱정되었지만, 막상 도착하니 대부분 건물에 경찰이 항상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이 한국인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줘 매우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숙소	센터가 리조트 내에 있었고 숙소 또한 리조트 안에 있었습니다. 시설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물이 깨끗해 믿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마뱀이 많아 가끔 숙소 안으로도 도마뱀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식사	아침과 점심, 저녁 전부 센터에서 제공했습니다. 한식 위주에 한 두 개 반찬들이 필리핀 음식이었고 맛은 매우 좋았습니다. 저녁은 매일 투표로 식사 여부를 확인하고 종종 밖에서 친구들 또는 선생님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교통	시내로 나갈 때 택시 대신 트라이시클을 이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지만, 곧 적응되어 자주 이용했습니다. 10~15분 정도 소요되었고 금액은 한국 돈으로 1,000~2,000원 정도였습니다. 항상 기사들과 금액 조율하며 이용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636,8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SSP (학생연수허가)	150,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여행자보험	37,95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카드	196,400원	외식, 쇼핑, 그랩, 데이터
현금	200,000원	외식, 쇼핑, 그랩
합계	1,221,1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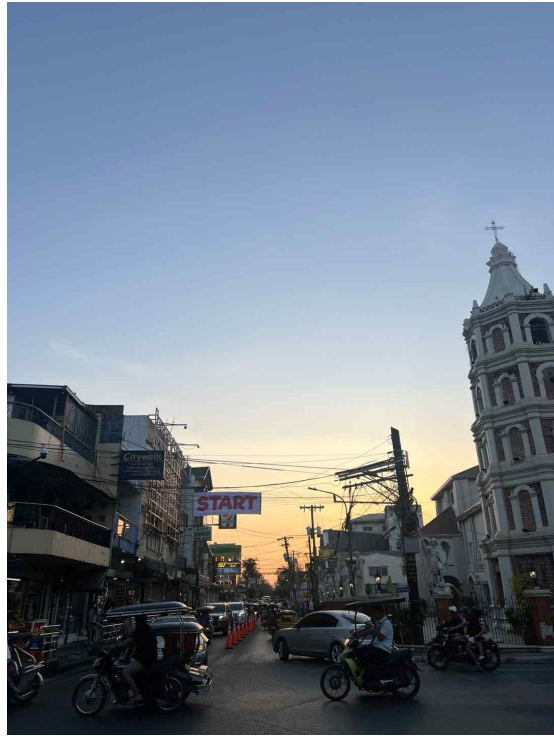
5. 출국 전 준비사항

물갈이를 하는 학생들이 반 이상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본인이 먹는 약, 또는 미리 약을 처방받아서 가지고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겨울에는 낮과 밤의 온도 차이, 야외와 실내 온도 차이가 꽤 커 걸옷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대형마트, 프렌차이즈 음식점 등에서는 카드 사용이 가능해 트레블월렛 같은 여행용 카드를 가져오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숙소에서 음식을 먹을 때 젓가락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나무젓가락을 여러 개 챙겨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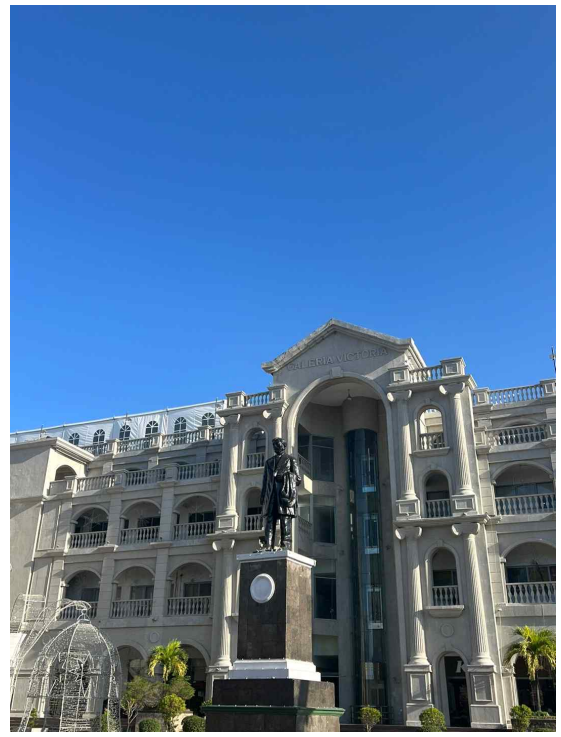
6. 본인 소감 및 평가

출발하기 전에는 긴 수업 시간 때문에 피곤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업이 함께 영어로 대화하는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수업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수업 이후에는 몇몇 선생님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가면서 영어를 자주 쓰게 되고 자연스럽게 영어로 말하는 것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또한, 그만큼 선생님들과 정도 많이 들어 프로그램이 끝났을 땐 너무 아쉬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고 부터는 영어 공부를 놓지 않기 위해 토익스피킹 테스트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이 프로그램은 영어 향상만을 위한 것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 현지 문화 이해 등 여러 면에서 좋은 경험이었고 잊지 못할 순간들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이와 같은 영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발랑가 시티 시내



발랑가 시티 시청 건물



리조트 내 식당 밥



리조트 내부



토요일 Activity: Sinagtala



토요일 Activity: Yacht tour in Subic Bay